

옛 어린이 옷

그
소
중
한
어
여
뽀



옛어린이 그
소
중
한
어
려
뻐 옷

옛어린이 옷

그
소
중
한
어
여
뵤

옛 어린이 옷

그 소중한 어여쁨

인쇄 2005년 4월 7일

발행 2005년 4월 14일

전시기획 조효숙 · 박경자 · 장경수

전시디자인 및 진행 임수진 · 최지연 · 김소연

책임진행 이덕실 · 장경수

정리 임현주 · 호원숙

사진 서현강

편집디자인 에이앤에이(주) 730 · 1995

발행 경운박물관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T. 3463-1336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값 30,000원

차 례	우리 어린이 옷	9	집안별 어린이 옷 모음 김씨집안 · 조씨집안 · 민씨집안 · 윤씨집안
		55	정성 깃든 보살핌 배내옷 · 두렁이
		65	곱고 단아한 품격 여아 옷 · 남아 옷
		83	앙증맞은 꾸밈 노리개 · 주머니 · 땡기
		95	포근한 사랑 쓰개 · 토시 · 버선 · 신발
	이웃나라 어린이 옷	115	중국 어린이 옷 - 화려하고 정교한 치장 일본 어린이 옷 - 전통축제 차림새
	논문	135	한국의 전통 어린이 옷 - 조효숙
	작품목록	155	

〈옛어린이옷 - 그 소중한 어여뵂〉전을 열면서

경운 박물관이 개관 2주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근세 복식과 우리 문화〉전으로 개관했고 〈근세 복식과 목기〉전을 열고

작년에는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전에 이어 〈옛어린이옷 - 그 소중한 어여뵂〉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귀애하는 우리 민족은 아이들 복식에 사랑과 축복의 기원을 불어 넣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세대를 우려하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산을 상서로이 여겼던 마음과 침실에 깃든 어머니 사랑을 되살려 보고 싶습니다.

길게는 100년 가까이 정성과 자존심으로 간수하고 보관해온 소중한 어린이 복식을 선뜻 기증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베푸는 마음이 이번 전시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린이옷의 전통과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품격과 자랑스러움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같이 전시된 이웃 나라의 어린이옷을 통해 문화의 폭과 차이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남자아이옷이 월등히 많고 여자아이 옷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선호의 풍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지으며 소망과 사랑의 기원을 불어넣어 준 것은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으니 이 전시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단아한 선의 디자인과 오방색의 조화를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이야말로 예술의 경지가 아닐까요?

이런 창조적인 전통의 계승이 현대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대로그 아니더라도 그 상징성과 품격과 생명 존중의 마음이 깃들었으면 합니다.

귀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 또 전시를 위해 전시물을 대여해 주신 분들과 박물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덕 실 | 경운박물관 위원회 위원장

집안별 어린이 옷모음

김씨집안

조씨집안

민씨집안

윤씨집안

김씨집안

영의정을 지낸 안동 김씨 김좌근의 5대 후손인 김광한(1921년)의 어린시절 옷이다. 이분은 10대에 이미 참봉을 지냈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 옷에서는 보기 힘든 사규삼이나 도포도 있다. 또한 이 옷들 중에는 고급 옷감으로 왕실의 침선장이 지어 보냈다는 것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아하면서도 품격이 있다.



1 저고리 赤古里

1930년대 Jacket for Boys Cotton 겹·옥양목
길이 38cm 폭 33cm 화장 42cm
소색 옥양목 겹저고리로, 고름이 달려있지 않다.

2 조끼 襟子

1920년대 Vest for Boys Silk 홑·진주사
길이 39cm 폭 39cm 고대 12cm
청색 진주사 홑조끼로 여름용이다.
비취색 유리단추가 달려있다.



3 동다리저고리 赤古里

1920년대 Jacket for Boys Silk · Ramie 겹 · 순인 모시

길이 31cm 폭 33.5cm 화장 37cm

겉감은 순인, 안감은 소색의 쟁친 모시, 동정은 흰색의 진주사를 사용하였다.

마치 오방장두루마기와 같은 색상 조합을 한 독특한 저고리이다.

겉은 연두색 순인, 안설표 소매는 진분홍 순인, 겹설표는 노랑색 순인.

돌띠고름은 남색의 순인을 사용하였다.



4 조끼·저고리 褙子·赤古里

1920년대 Vest and Jacket for Boys Silk Cotton

홀·갑사 홀·소화문주(小花紋紬)

조끼:길이 34cm 폭 34.5cm 고대 10cm

저고리:길이 32cm 폭 34.5cm 화장 44cm

조끼의 걸감은 연두색 갑사이고 안감은 연분홍색 옥양목으로 겉과 안의 옷감 조합이 특이하다. 3개의 속주머니가 달려 있고, 홍색 단추 4개가 달려 있으며, 가장자리는 재봉틀로 상침하였다. 저고리는 소화문주(小花紋紬)로 만든 남아용 홀저고리이다.



5 전복 · 포대 戰服 · 布帶

192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Silk 출 · 갑사 모본단

길이 63cm 폭 31.5cm 고대 8.5cm

전복은 조선시대 무관들의 군복이자 문무관리들의 평상복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소매와 섶이 없으며 양 옆선은 트여 있다.

이 전복은 청색 갑사 홀깃으로, 앞단에는 아기의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강령만수무강(康寧萬壽無疆)'의 덕담을, 소매와 목둘레에는 소국(小菊)문양을 금박하였다. 일반적으로 전복에는 홍색 세조대를 사용한다. 이 전복에는 홍색

모본단으로 만든 포대(布帶)에 '수 부귀 다남자 천강령(壽 富貴 多男子 千康寧)'이라는 글자를 금박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였다.





6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홀 · 광사
길이 70cm 폭 36.5cm 화장 43.5cm

얇게 비치는 옥색 두루마기로 잡자리 날개와 같이 투명하다.
어린이의 성장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접어 넣은 시접이 그대로
비쳐 보인다. 고름은 겉감과 같고 배래가 거의 직선이다.



7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홀·광사
길이 70cm 폭 35cm 화강 41cm 수구 13cm 진동 16cm
진분홍 무늬있는 광사 홀두루마기로 남색 고름이 몸통을 둘러
낼 수 있도록 길게 달려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성장속도에
맞춰 크기를 늘려주려고 시집의 여유분을 많이 두었다.



8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소화문주(小花紋紬) 삼광주
길이 81cm 폭 41cm 화장 51cm

겉감은 학, 대나무 문양이 시문된 연두색 소화문주(小花紋紬), 안감은 진분홍색 삼광주로, 안팎의 화려한 색상대비가 돋보이는 두루마기이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는 숨을 얇게 두고 시접을 넉넉하게 두었으며, 동정은 소색 삼광주로 만들었다.



9 색동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겹 · 갑사 순인 숙고사 생고사 명주

길이 59cm 폭 32cm 화장 39cm

갑사와 순인 등 여러 종류의 옷감으로 만든 춘추용 두루마기이다. 길은 연두색 갑사, 깃은 청색 순인, 무는 홍색 순인, 안설패는 진분홍 숙고사, 고름은 다홍색 생고사로 만들었으며, 노랑색 화문갑사로 만든 길센의 끝은 자색으로 멋을 내었다. 색동소매는 색색의 순인, 갑사, 생고사를 이어 만들었는데, 진동선을 사선으로 하여 마치 두루마기 위에 전복을 덧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안감은 진분홍색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고대와 뒷목점에 박쥐장식을 하였다.



10 도포 道袍

1920년대 Coat for Boys Silk 홑 · 갑사

길이 75.5cm 폭 38.5cm 화장 52cm

도포는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던 겹옷으로 조선중기 임진왜란 이후 특히 많이 입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보면 좋은 일에는 청색도포를, 평시에는 백색도포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넓은 소매에, 끈은 것이 달려 있고, 무가 달렸으며, 허리부터 뒷중심이 터져 있고 그 위에 전삼 한 자락 더 붙어있어 품위를 더 한다. 그러나 이 유물은 뒷길 중심이 막혀 있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의 도포는 경상북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난다. 남색의 화문갑사 홑으로 만들었다.







11 사류삼 四揆衫

1920년대 Ceremonial Coat for Boys Silk 화문순인·순인

길이 70cm 폭 34cm 화장 48cm 뒤통임 19cm

사류삼은 조선시대 남자아이의 예복으로, 소매가 넓으며, 맞깃이다. 두루마기나

창옷 위에 입는다. 양옆의 겨드랑이가 트인 부분과 깃, 도련, 수구에는 검은색 선을

두르며, 그 위에는 소국(小菊),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壽福康寧), 부귀만수무강(富貴萬壽無疆) 등을 금박한다.

일반적으로 사류삼을 입을 때에는 세조대를 띠고 복건을 쓴다. 이 사류삼은 연두색 화문순인을 사용하여 홀으로 만들었다.

깃, 겨드랑이, 도련, 수구 등에는 검정색 순인을 사용하여 선을 둘렀으며, 부귀다남(富貴多男), 수복강녕(壽福康寧),

부귀만수무강(富貴萬壽無疆) 등을 금박하였다.

조씨집안

서울 토박이인 1937년생의 돌복으로 외가에서 지어 보내온 옷이다.
백날을 넘기고 두 고리짜의 옷을 보냈다고 한다. 황해도 해주식의
색동저고리와 돌복을 비롯해 꽤 성장해서 입을 옷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정성껏 지은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며 외손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느껴진다.



조두영(1937~)



12 전복 戰服

193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길이 62cm 전복띠 길이 164.5cm

이 유물은 남색 순인 흙으로 지어 가장자리에 국화문, 수복강녕(壽福康寧),

만수무강(萬壽無疆),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수부귀(壽富貴),

다남자(多男子) 등을 금박하였고, 천도형 은단추 2개를 달았다. 홍색 은조사로 만든 띠에도 국화문, 수복강녕, 만수무강 등을 금박하여 어린이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13 개구멍바지

1938년 Trousers for Boys 길이 65cm

남성용 바지와 같은 형태인데 용변을 보기 편하도록 밑을 터서 만든 바지로 5-6세 남자 어린이가 입었다. 겉은 소색(素色) 수자문(壽字紋)과 표주박문(瓢紋) 숙고사이며 안은 흰색 옥양목으로 하고 얇게 솜을 두어 포근하게 만들었다.



14 저고리 · 풍차바지

1937년 Jacket and Trousers for Babies

바지길이 71cm 저고리길이 28cm 화장 38cm

2-3세 어린이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입었던 풍차바지와 저고리 일습이다.

풍차바지는 소색(素色) 진주사(眞珠紗)로 지었으며 저고리는 왜사(倭紗)로 하였으나 동정이 바지와 같은 진주사이다. 1937년생 남자어린이의 해주 외가에서 지어 보낸 옷으로 저고리 고름과 셔를 붉은 실로 上字(字), 八·十字(字)로 떠서 묶어 놓은 진솔옷이다.



15 돌띠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Jacket for Children

길이 35cm 화장 35.5cm

노랑색의 화문단 길, 진분홍색 모본단 소매, 남색 깃·고름·끝동으로
구성되었으며 1937년생 어린이가 입었다. 고름의 긴쪽은 수(壽) 회(赫)
화문(花紋)을 넣어 짠 직물의 끝부분을 이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거두었다.
여러 조각의 직물을 이어 켜를 구성한 것이 이채롭다.



16 돌띠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vercoat for Children

길이 57cm 화장 37.5cm

분홍 모본단(模本緞)에 연두 소화문단(小花紋緞)으로 안을 대어 지은 겹두루마기이다. 몸을 둘러매도록 기다란 돌띠 고름을 달았다. 1937년생 어린이의 해주 외가에서 지어 보낸 옷으로 원편의 저고리와 함께 입었다.



17 돌떠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vercoat for Children

길이 63cm 화장38.5cm 진분홍 소화문(小花紋) 은조사로 지은 3~4세 남아용
돌두루마기이다. 몸을 둘러 매도록 남색의 기다란 돌띠고름을 달았다.



18 색동 두루마기 周衣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길이 59cm 화장 39cm

조선시대 말기 어린이가 까지 설날에 착용한 색동 두루마기로, 오늘날 돌복으로 입게 되었다. 여자 어린이용은 깃·고름을 홍색으로 하고, 남자 어린이용은 남색으로 하였다. 이 유물은 남색 깃·고름을 달아 만든 남아용이다.

민씨 집안

1928년과 1958년생 어린이 옷이다. 같은 형태의 조끼를 집안 내에서 같이 입는 등, 집안 내의 복식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1958년생의 옷에서는 직물의 시대적 변화도 느낄 수 있다. 선비 집안의 소박한 품격이 드러난다.



19 조끼 褡子

1920년 Vest for Boys Silk 겹·능직 공단
길이 33.5cm 폭 40.5cm 고대 14cm
적갈색 기하학문 능직 겹감과 남색 공단 안감으로 된 조끼이다.
3개의 단추구멍과 주머니가 달려 있다.

20 조끼 褡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뉴퐁 인조견
길이 34cm 폭 37.5cm 고대 13.5cm
적갈색 장미문 뉴퐁 조끼로, 안감은 송화색 인조견을 넣었다.
단추구멍 4개만 남아 있고 단추는 빼어낸 상태이다.





21 색동마고자

1960년도 Jacket for Boys Silk 솜 · 숙고사 판사 명주

길이 32cm 폭 33cm 화장 37cm

연두색 숙고사 길에 색동소매와 노랑 섹을 달았고 안감은 연분홍색 명주이다.

얇게 솜을 두어 포근한 느낌을 주는 마고자이다. 소매는 조각천을 이어 만든 색동이 아니고 여러 색으로 직조된 것이다. 옆선이 4.5cm씩 트여 있으며, 화문이 음각된 천도형 단추 2개가 달려 있다.



22 색동두루마기 周衣

193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솜 · 숙고사 명주
길이 64cm 화장 36cm 품 33.5cm

색동두루마기의 길, 깃, 섶, 무 등에 오방색을 사용한 것을 '오방장두루마기' 혹은 '까치두루마기' 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길은 연두색, 소매는 색동, 섶은 노랑색, 무는 다홍색으로 만든다. 민색매의 남아용 두루마기로 깃과 고름이 남색이다. 분홍색 명주로 안감을 대었으며, 안감과 겉감 사이에 얇게 솜을 두었다.



23 두루마기 周衣

193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홀 · 순인 진주사 은조사

길이 77cm 폭 34.5cm 화장 44.5cm

조선시대 남녀노소가 착용하던 포로, 앞여밈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트임 없이 두루마켜 있다는 뜻으로 두루마기라 불렀다. 이 유물은 연두색 소화문(小花紋) 순인으로 만든 홀두루마기로, 동정은 은조사를 사용하였다. 도련과 소매부리에는 연한 초록색 순인 또는 진주사로 안단을 대었으며, 겹고름 일부와 안고름, 안깃도 연한 초록색 순인으로 만들었다. 특히 오른쪽 길의 겹고름 윗부분 약 24cm를 연한 초록색으로 배색함으로써, 고름을 매었을 때 매듭부분에만 연한 초록색이 배치되도록 하여 입었을 때 색의 조화를 염두에 두었다.



24 돌띠저고리 · 조끼 · 마고자

1950년대 Jacket, Vest and Over Jacket for Boys

길이 28cm(저고리) 30cm(조끼) 29.5cm(마고자)

화장 34cm(저고리) 36cm(마고자)

남자 어린이 돌띠 일습 중 상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개화기 이후 남자 성인복의 영향으로 분홍저고리에 조끼와 마고자를 착용하게 되었다. 수복자문(壽福字紋), 화문(花紋), 불로초문(不老草紋) 등을 금박하여 건강·장수의 기원과 함께 귀여움을 강조하고 있다.



25 돌띠 저고리 赤古里

195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화문단 인조견

길이 28cm 폭 31cm 화장 34cm

아기의 수명장수(壽命長壽)를 기원하는 뜻에서 고름을 한바퀴 돌려 맨 수 있게 된 저고리이다. 분홍색 화문단 길감에, 안감은 분홍 인조견 안감을 대어 만들었으며, 남색돌띠고름이 달려 있고 안고름은 없다.



26 조끼 褙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 · 숙고사 명주

길이 30cm 폭 33.5cm

남자 저고리 위에 덧입는 소매 없는 옷으로, 개화기에 서양복 조끼의 영향을 받아 입기 시작하였다.

남색 숙고사에 진분홍색 명주로 안감을 대었다.

목둘레, 진동, 옆선과 도련을 따라 화문을 금박하고

앞길에는 초화문(草花紋) '수복문(壽福紋)', 뒷길에는

'만수무강수복강녕부귀수부귀다남자

(萬壽無疆壽福康寧富貴壽富貴多男子)'를 금박했다.

진분홍색 플라스틱 단추가 3개 달려 있다.





27 조끼 褙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숙고사 인조견 길이 30.5cm 폭 32cm
 청색 숙고사 겹감에, 진분홍색의 인조견 안감을 대어 만들었다. 속주머니 3개가 달려있으며,
 옆선에 3cm 가량 트임이 있고, 플라스틱 단추 4개가 달려있다. 앞길과 뒷길에 국화문과
 '부귀수복강령(富貴壽福康寧)'을 금박하였다.

28 조끼 褙子

1950년대 Vest for Boys Silk 홑·숙고사 길이 36.5cm 폭 36.5cm
 청색 숙고사로 홀바느질하였으며, 3개의 주머니가 덧대어져 있다. 앞길에는 국화문과
 '부귀수복강령(富貴壽福康寧)' 이, 등에는 '부귀다남자수복강령(富貴多男子壽福康寧)' 이 금박되어 있다.



29 마고자

195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문단 화문단 은반건

길이 30.5cm 폭 32.5cm 화장 34.5cm

마고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이다. 깃과 고름이 없고 앞 중심에 단추를 달아 여며 입는다.

이 유물은 소매의 색을 달리한 남아용 동다리마고자이다. 봉황과 소나무가 시문된 초록색 문단(紋段) 길에, 노랑색 국화문단의 싼, 홍색 장미문단 소매를 달았다. 청회색 은반건 안감을 대었으며, 숨을 얇게 두었다.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용적 목적과 더불어 장식적 효과를 주기 위하여 고대걸, 뒷목걸, 어깨점에는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

30 색동두루마기 周衣

195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겹 · 모본단(模本緞) · 명주 · 솜

길이 60.5cm 화장 36.5cm 폭 34.5cm

색동두루마기의 길, 깃, 싼, 무 등에 오방색을 사용한 것을 '오방장두루마기' 혹은 '까치두루마기' 라고도 한다. 이 유물은 연두색 모본단 길에 색동단 소매가 달렸고, 노랑색 화문단 싼과 홍색 화문단 무, 남색 궁단 깃과 고름이 달렸다. 얇게 숨을 두고 진분홍색 명주 안감을 대었다. 밝은 원색 대비가 특징이다. 목둘레선의 뒷목걸, 고대걸, 어깨점에 홍색의 박쥐 매듭이 달려 있고 깃, 고름과 소매부리, 무에는 화문과 수복문을 금박했다.



윤씨 집안

일찍이 서양의 실용주의를 받아들인 집안의 옷으로 1949년생의 옷이다.
옷의 색상이나 구성 방법에 전통방식이 아닌 개량된 것이 많으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재미있는 형태가 많다.



31 전복 戰服

194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Silk 홀 · 감사

길이 53cm 폭 31cm

국화문, 편복문, 수복강령을 금박한 남색 전복에는 은단추 2개가 달려 있다.

홍색 술피에는 딸기술이 연결되고 보라색 괴불달린 주머니를 달아주었다.

괴불은 오래된 연 뿌리에서 서식하는 열매로 벽사(辟邪)의 의미가 있어 생일에 이 주머니를 채워주었다. 네모진 비단 색 형짚을 귀나게 접어 꿰매어 그 속에 솜을 통통하게 넣고 가장자리에 수를 놓아 아름답게 꾸미고 매듭 끈을 꿰어 장식하는 일종의 노리개이다.





32 숨저고리와 조끼 赤古里

1940년대 Jacket and Vest for Boys Silk 겹 · 명주 모본단

숨저고리 길이 29cm 폭 33cm 화장 35.5cm

조끼 길이 29cm 폭 30cm

윤씨댁 분홍 숨저고리는 겹과 안이 모두 명주로 되어 있고
돌띠고름이 길게 달려 있다. 남색 모본단 조끼는 겹과 안이 청홍
대비를 이루며 주머니 2개와 매화 모양의 은단추가 3개 달려 있다.

33 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숙고사 명주

길이 54.5cm 폭 33.5cm 화장 37cm

깃 · 고름 · 끝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49년생 어린이가 입었다.

남색 돌띠고름이 달려 있는 분홍 숙고사 두루마기로 안감은 소색 명주로 되어 있다.
남색 고름은 생고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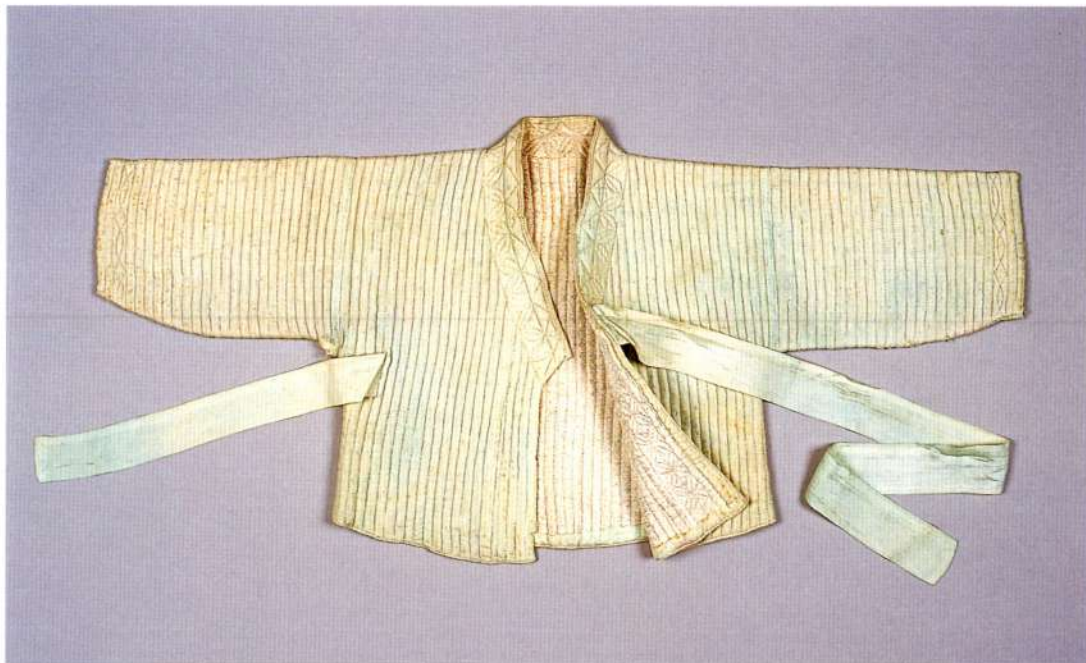


34 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Jacket for Babies Silk 솜·명주
길이 26cm 폭 33cm 화장 34cm
저고리는 소색 명주에 솜 둔 돌띠저고리로 안감은
무문능으로 만들었다.

35 바지

1940년대 Open Crotched Pants for Babies Silk 솜·명주
길이 45.5cm 바지통 20.5cm 부리 13cm 밑위 14cm
허리둘레 66cm 트임 17.5cm
바지는 개량식으로 어깨허리를 대고 바지 밑을 뚫어 놓아
'깨구멍바지'라 한다. 명주바지의 선명한 보라색이 매우 아름답다.





36 누비 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Quilted Jacket for Children

누비 · 삼팔주 명주 길이 27cm 폭 29cm 화장 32cm

누비간격 0.8cm

연한 옥색 삼팔주 겉과 소색 명주 안을 넣고 곱게 누빈 저고리로

윤보선가에서 입혔다. 깃, 끝동, 섶에는 작은 꽃무늬형태로 정성스럽게 누벼주고 돌띠고름을 달았다.

37 개량 솜바지

1940년대 Trousers for Boys Silk 솜 · 숙고사 명주

길이 56cm 부리 16cm 허리너비 3.5cm 허리둘레 70cm

겉감은 숙고사, 안감은 명주로 된 바지로 솜을 두었다.

구성방법은 사복이 연결된 전통의 봉제방법이 아닌 개량식으로 만들고 바지허리에 끈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밑에는 무를 대었다.

38 조끼와 마고자

1940년대 Vest and Jacket for Boys Silk · Cotton 겹 · 뉴통 먼

조끼:길이 33.5cm 폭 35cm

마고자:길이 32cm 폭 35cm 화장 39.5cm

다채색의 변형된 격자무늬 조끼는 주머니 3개와 빨간 단추 4개가 달려 있고 진분홍색 명주로 안감을 넣었다.

마고자는 진갈색 바탕에 흰색 포도잎사귀 무늬가 프린트된 실크로 만들었으며 안감은 회색 명주이다.



39 상의 上衣

1940년대 Quilted Jacket for Babies Silk 누비·크레이프 명주
길이 27cm 폭 26cm 화장 33cm
옥색 크레이프 위에 손으로 꽃무늬를 누볐고 그 중심에 각각 분홍색실로 장미꽃수를 입체적으로 놓았다. 안감은 명주로 하고 얇게 솜을 두었다. 만다린칼라에 매듭단추 2개가 달려 있고 안쪽에는 똑딱단추 3개로 여미게 되어 있다.

40 개량 바지

1940년대 Open Crotch'd Pants for Babies Silk 솜·관사 인조견
길이 40cm 바지부리 12.5cm 허리너비 4cm 허리둘레 60cm 트임 18cm
개량식 연분홍 바지로 아기의 용변이 편리하게 아래가 트여 있고 양쪽 어깨의 여밈은 단추와 고리가 다른 방향으로 달려 있어 앞뒤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재미있는 바지 형태이다. 겹감은 연분홍 관사, 안감은 소색 인조견으로 된 겹바지이다.





41 쓰개와 버선

1940년대 Hood and Socks for Children Silk Cotton 숨·뉴통 무명 광목
쓰개:길이 43cm 밑둘레 70cm 머리통 19cm

버선:길이 26cm 버선목 12cm 회목 10cm 발길이 15cm

방한용 쓰개로 풍차의 개량형으로 보인다. 겉감은 검정색 뉴통에 안감은 무명으로 하고 숨을 두었다. 앞쪽에 묶을 수 있는 끈이 두개 달려 있다. 연한 회갈색 광목에 숨을 두고 만든 버선으로 버선목에 끈이 달려 있다.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했고 장식이 없어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쓰개와 버선이다.

정성잇든 보살핌

배내옷

두렁이



42 배냇저고리

19세기 말-20세기 초 Swaddle Jacket Cotton

길이 22cm 화장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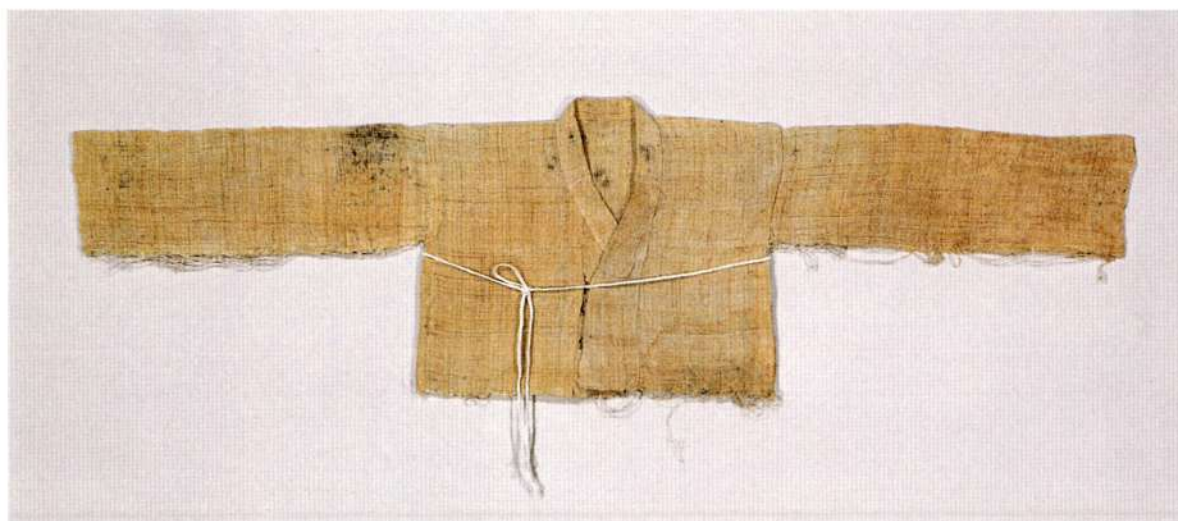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입히는 저고리. 깃을 달지 않으며 고름도 몇 가닥의 실로 만들어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든다. 이 유물은 겹으로 된 얇은 목면이고 목둘레와 여밈은 개량형으로 변형하였다.

43 두렁이

19세기 말-20세기 초 Skirt for Babies Linnen

길이 49cm

두렁이는 어린 아이의 배에 둘러주는 치마 같은 옷이다. 옷을 입히기에는 어리지만 맨몸으로 둘 수 없는 아기를 위해 보온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 유물은 여름용으로 모시 혼겹으로 만들었다.



44 배두랑이

1970년대 Belly Cover for Babies Hemp Silk 흙·삼베 명주

길이 23.1cm 폭 32.6cm

배에 두르는 치마로 배를 따뜻하게 덮는 용도로 입혔다. 삼베로 만들었으며 어깨에 명주 끈을 달았고 끈으로 여미게 하였다. 이는 신체의 성장으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국립 제주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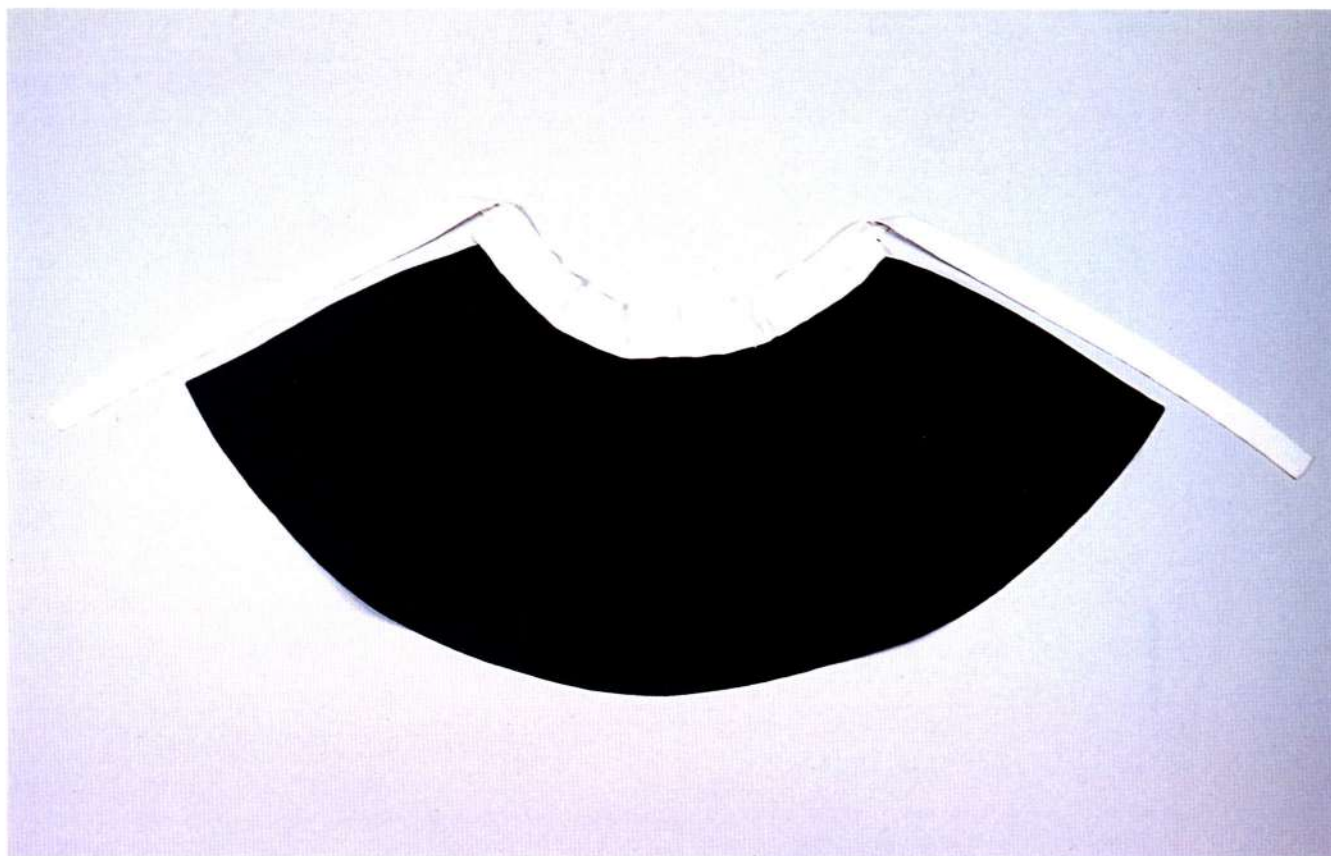
45 붓뒤창옷

1950년 New-born Baby's Clothes Hemp 흙·삼베

길이 23.5cm 폭 18.2cm 화장 54cm

붓뒤창옷은 아기집 즉 태반에서 떨어져 나온 뒤 입는 큰 옷이란 뜻으로 배냇저고리를 일컫는 제주도 방언이다. 깃과 소매 달려 있고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무명실로 허리띠를 만들어 주었다. 국립 제주박물관 소장.





46 배넛저고리와 가운

1940년대 Swaddle Jacket Gown and for Babies Ramie · Cotton

홀 · 모시 소창 길이 60.5cm 폭 33cm

길이 23.5cm 폭 24.5cm

소색 배넛저고리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처음 입히는 옷으로 깃을 달지 않았다. 양쪽에 달린 여밈을 위한 끈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고를 대신 무명실로 달았다. 안설편 용으로 되어 있다. 흰색 아기용 가운은 모시 홀겹으로 곱술 바느질하였다.

47 누비두렁치마

1880년대 Quilted Skirt for Girls

누비 · 무명 길이 40cm 폭 148cm

길은 쪽빛 무명을 정교하게 손누비하였다.

무명 3폭 좌우에 사다리꼴 형태의 무를 달아 양끝이 쳐지지 않도록 하였다. 다른 유물에 비해 치마폭이 넓다. 석주선 기념박물관 소장.



48 저고리와 두렁이 赤古里

Jacket and skirt for Children 겹 · 명주 용

저고리:길이 24.5cm 폭 30.7cm 화장 36cm

두렁이:길이 41.5cm 둘레 69cm 주름간격 3.5cm

흰색 명주로 된 돌피 저고리와 두렁이. 두렁이는 어린아이의 배와 아랫도리를 둘러주는 치마같이 만든 옷으로 보온성이 중요하여 솜을 두거나 겹, 누비로 만든다.

이 두렁이는 안감이 움으로 되어 있어 폭신한 느낌이 나며 깃과 동정을 눌러 박았다.

일반적인 두렁이 치마와 달리 어깨허리가 달려 있다.

49 두렁이

Skirt for Babies, Cotton

19세기 말 ~20세기 초 길이 39cm

두렁이는 어린아이의 배에 둘러주는 치마같은 옷이다. 옷을입히기에는

어리지만 맨몸으로 둘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보온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 유물은 얇은 목면을 겹으로 만들어 성글게 누볐다.





50 모자 · 케이프 · 턱받이

1940년대 Silk Cap, Cape and Bib for Baby Silk

모자: 높이 11cm, 갱 폭 5cm

케이프: 길이 35cm, 둘레 110cm

턱받이: 가로 25.5cm, 세로 22cm

모자는 고운 실크로 만들었으며 대나무로 만든 가는 선을 넣어 찡의 형태를 잡고 가장자리를 실크 레이스로 장식하였다.

케이프와 턱받이도 실크 바탕에 레이스 장식이 있고 꽃수가 놓여 있다.

금고단아한 품격

여아옷

남아옷



51 색동 두루마기 周衣

20세기 Multi-colored Coat for the First Birthday Silk 겹·모본단 뉴뽕
길이 51cm 폭 31cm 화장 36.5cm

첫 돌맞이 예복의 일종으로 깃과 고름에 홍색을 사용한 여아의 색동두루마기이다.
초록색 모본단 길에 자주색 무가 달려있으며, 안감은 진분홍 뉴뽕이다.
앞섶은 색동 조각 천을 이어 장식하였고 깃 둘레에는 잣을 물렀다.
사건자수박물관 소장





52 색동 저고리 赤古里

20세기 Children's Jacket with Back Ornaments Silk 겹 문단 명주

길이 21cm 폭 30.5cm 화장 32cm

두루색 길에 색동소매가 달려있으며 깃과 고름이 홍색인 여아용 저고리이다.

이 저고리는 마치 도투락맹기가 달린 것 같은 독특한 형태로 뒤에 드림이 있다.

15×38cm 크기의 다홍공단으로 된 드림위에 모란과 나비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드림 아래쪽에는 제비부리모양의 맹기가 연결되었으며 끝에는 색실 술을 달아주었다.

드림의 안쪽은 구름과 용(龍)이 해학적으로 시문된 분홍색 문단이다.

안감은 소색의 명주이다, 사전자수박물관 소장.

53 저고리 赤古里

Jacket and skirt for Girls Silk Cotton 솜 · 홑 자미사
저고리:길이 23.5cm 폭 33.5cm 화장 38cm 치마:길이 52cm 허리둘레 75cm
화문(花紋)이 있는 옥색 자미사에 솜을 둔 저고리로
깃, 고름, 끝동에 분홍색 회장을 붙여 반회장 저고리라 한다. 분홍색 회장에는
화문금박이 찍혀 있다. 깃은 둥근 깃이며, 소매는 수구가 좁은 직배래이다.
화문(花紋)이 있는 홍색 사 치마로 3폭을 이어 만든 홑겹의 통치마이다.
면으로 만든 허리말기와 어깨 끈 한 쌍이 달려있다. 치마의 접어 올렸던
끝단을 펴고, 안쪽에 천을 대어 꿰그르기 했다. 치마 한 쪽에는 이어붙인
흔적이 있고 허리에 잔주름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54 돌띠저고리 赤古里

193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갑사 인조견

길이 26cm 화장 31.5cm 품 29.5cm

옥색 갑사에 남색 돌띠고름이 달린 저고리로, 원형의 박쥐문이
시문되어있다. 고대점과 뒷목점에 자적색 박쥐매듭 3개로 장식하였다.

55 풍차바지

1930년대 Pants for the Boys Silk 겹 · 갑사 면아사

길이 63.5cm 허리둘레 58cm 허리길이 18cm

‘수복문(壽蝠紋)’ 이 시문된 소색갑사 풍차바지이다.

안감은 인조견으로 되어있고 면아사 조끼허리에 옥색갑사 대담이
달려 있다. 조끼허리와 바지 연결부분의 앞주름 2곳과 바지가랑이,
바지부리쪽 밀트임 끝부분 등 6곳에 홍색 박쥐매듭을 달았다.





56 조끼 襟子

20세기 초 Vest for Boys Silk 겹·문룡 명주
길이 28.2cm 폭 26.5cm
겉감은 작은 무늬가 있는 연두색 능(綾)이고
안감은 무늬 없는 청색 명주를 넣었다. 개인소장.

57 색동마고자

194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매죽단(梅竹緞)
색동단 은반건 길이 30cm 폭 35cm 화장 37cm 진동 14cm
수구 10.5cm 고대 11cm
대나무, 국화, 난초, 매화 등 사군자가 시문된 초록색
매죽단(梅竹緞)으로 길을 만들고, 직조된 색동소매를
달았으며, 안감은 소색 은반건을 사용하였다.
옆선에 3.5cm의 트임이 있으며, 앞·뒷길에는 '희(薙)'자와
인화형 국화문 금박이 찍혀 있다.



58 색동 마고자

20세기초 Jacket for Boys Silk 겹 · 화문단 삼팔주
 길이 31cm 폭 33.5cm 화장 39.5cm
 홍 · 남 · 노랑 · 분홍 · 초록색 화문단을 이어 색동소매를
 만들었다. 송화색 모본단 앞길에는 분홍, 옥색 실로 작은
 패랭이꽃을 수놓고 뒷길에는 앞의 잔잔한 수와 대비되는
 붉은 장미와 나비를 과감하게 수놓았다. 개인소장



59 배자 褓子

1880년대 Vest for Boys

길이 30.5~31.5cm 폭 26~29cm

배자는 남녀노소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옷으로서 소매, 섶, 고름이 없고 깃이 마주 대어 있는 형태이다. 이 배자는 남아용으로, 앞이 뒤보다 짧고 옆이 트였으며 단추를 달아주었다. 거드랑이 밑에 끈을 달아 앞에서 매어 입기도 하였다. 더울 때는 모시나 사(紗)를, 추울 때는 단(絨)을 사용하였다.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60 조끼 褙子

194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명주

길이 30.5cm 폭 30cm

남색 명주 바탕에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여 아름답게 자수하였다. 앞길에는 모란을 대칭으로 크고 작게 수놓았고 등에는 한 쌍의 학과 구름을, 목둘레와 진동에는 수 복(帥 福)자를 수놓았다. 안감은 홍색의 명주를 대었다. 개인소장.



61 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명주

길이 52.5cm 폭 31cm 화장 37cm

선명한 진분홍색이 화사한 두루마기로 겹감, 안감 고름, 속고름 모두 다듬은 명주로 만들었다. 흰색 동정이 돋보인다. 개인소장



62 두루마기 周衣

1949년 Ordinary Coat for Boys Silk 솜 · 공단 인조견

길이 56cm 폭 34cm 화장 36cm

진분홍색 공단에 모란꽃과 보문(寶紋)이 나염된 두루마기이다.

진분홍색에 두드러진 남색과 연두색의 문양이 어우러져 서울 사대문안 남자아이들의 경쾌한 화사함과 화려함이 엿보인다. 개인소장



63 두루마기 周衣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명주 무명

길이 77.5cm 폭 39cm 화장 51cm

잘 다듬은 먹색 명주 두루마기로 표면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다. 안감은 검정색 무명으로 하고 흰색 명주
동장을 달았다. 개인소장.

—
양
증
맛
은
꾸
밈
—

노리개

주머니

댕기



64 금원앙노리개 鴛鴦單作佩飾

19세기 Pendant with Twin Ornament
의친왕 5녀 해경(海璟) 용주가 돌복에 달았던 금 원앙노리개로
금사를 정교하게 엮어 몸세를 만들고 정수리와 날개에는 비취
모(翡翠毛)를 입혀 원앙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65 삼작노리개 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길이 31 cm

산호와 공작석이 장식된 옥나비 한 쌍과 산호가 지, 비취가 달린 삼작노리개이다. 황색, 홍색, 청색의 이봉매듭술이 늘어져 있다. 산호 구슬이 박힌 비취 띠돈으로 묶여 있다. 개인 소장.

66 투호 삼작 노리개 投壺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Silver Three small jar-shaped Ornaments 건
총길이 23cm 술길이 10cm, 투호장식 2.8cm

어린이용 삼작노리개로 투호 은장식이 달려 있다. 투호는 향아리의 변형으로, 청·홍의 화살을 향아리 속에 넣어 그 수로 승부를 가리는 투호놀이 향아리를 본 뜬 것이다. 이것은 길일(吉日)의 기쁨을 상징하는 동시에 향아리의 뚜껑을 덮어 액을 면하고 한해를 편히 지내라는 뜻을 지닌다. 남색, 연두색, 꽃분홍색의 딸기술이 달려 있다. 개인 소장.

67 산호·표주박노리개 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Coral Ornament Pendant with Jade Ornament
길이 25cm 길이 16cm

남색 딸기술 매듭을 한 산호가 지 노리개와 홍색 봉술매듭을 한 표주박 옥 노리개이다.







68 노리개 佩飾

20세기 초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견 은 산호 칠보
길이 23cm 길이 13.5cm 길이 13.5cm
왼쪽 옥색 노리개는 산호와 은 칠보 장식이 된 비선 한 쌍이 달려있다.
가운데 노리개는 옥색으로 장식된 이봉술 매듭에 칠보장식의
은도끼와 자물쇠가 달려있다. 오른쪽 진분홍 술이 달린 노리개
역시 은칠보 도끼와 자물쇠가 달려 있다.

69 노리개 佩飾

20세기 초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견 은 산호 칠보
길이 13.5cm 길이 15.5cm 길이 15cm
왼쪽의 옥색 봉술 노리개는 산호장식이 된 은제 원형 함이
달려있는데 뚜껑이 열린다. 홍색과 청색 노리개는 이봉 술 매듭에
은 칠보 장식 북과 '참을 인(忍)' 자가 각각 달려 있다.

70 노리개 佩飾

20세기 초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견은 산호 칠보
길이 17cm 길이 3.5cm
괴불 쌍노리개는 산호로 장식된 은칠보 괴불 쌍 노리개이다.
오색 매듭술이 달려 있다. 은칠보 산호 침낭으로 뚜껑이 열리는
바늘쌈 모양이며 홍색 상모가 달려 있다. 개인소장.





71 두루주머니 囊

20세기 초 Children's Pouch Silk 접 · 문단 명주

지름 5cm 매듭 길이 한쪽 10 cm

어린이용 두루주머니로 빨강, 노랑, 초록의 문단에 파도 · 바위 · 원앙 · 연꽃 · 구름 등의 십장생 무늬를 정성스럽게 수놓았다.

불록한 주머니 안에 노란 콩이 가득 들어있다. 이는 액운을 막고 길한 장래를 기원하는 풍습으로 궁중에서는 정초에 붉은 콩을 붉은 종이에 싸서 하사하기도 하였다. 개인소장



72 새앙머리땡기 唐只

19세기 말 Hair Ribbon

길이 134.5cm 폭 5cm

조선말기 의왕(義親王)의 5녀인 해경(海璟)옹주가 궁에서 새앙머리에 달았던 땡기로, 자색 비단에 국화문 금박을 찍고 양 끝에 진주장식을 달았다. 새앙머리는 궁안의 어린 나인들과 왕녀(王女)들의 예장용 머리로 나인들은 커다란 생머리를 붙이고 빨간 땡기 4가닥을 드리며, 왕녀들은 작은 생머리를 달고 머리 중간에 땡기 두 가닥을 접어 붙인다. 원래는 땡기양쪽 끝부분의 두번째와 세번째 국화문 금박 사이에 곡옥(曲玉)장식이 달려 있었다.



73 땡기 唐只

20세기 Hair Pieces Silk 향라 뉴통 숙고사 광사
홍색 땡기들은 모두 어린 아이용으로 5족 향라, 뉴통, 숙고사, 광사 등 각기 다른 소재로 만들고 금박을 찍었다.

74 배씨땡기 唐只

20세기 Hair ribbon with Silver Ornaments Wool 전
총길이 62cm 폭 2.5cm
배씨땡기는 은으로 배씨[梨種子]모양을 만들어 가는 땡기끈에 붙인 어린이용 땡기이다. 머리카락이 작은 서너 살 이전의 여자아이 수식(首飾)으로 사용하였다.





75 두루주머니와 귀주머니

20세기 Children's Pouch

옷에 주머니가 붙어 있는 서양복과는 달리 전통한복에는 별도의 예쁜 주머니를 착용함으로써 실용성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흔들림이 있는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남녀노소가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주머니는 모두 어린이용이다. 두루주머니는 열낭이라고도 하며 밑이 둥글고 입구에 잔주름을 잡고 양쪽에서 끈을 꿰어 매듭을 늘어뜨렸다. 청·백·홍·흑·황색의 오방색을 써서 만든 오방주머니도 있다. 귀주머니는 각이 있는 형태의 주머니이다. 각각의 주머니에는 매듭술이나 은으로 만든 도끼, 자물쇠, 북, 북송아, 고두쇠, 방울 등이 달려 있다.

— 포근한 사랑 —

쓰개

토시

버선

신발





76 조바위

1960년 Girl's Winter Bonnet Silk 겹 · 문단 인조견
길이 18cm

봉황문이 시문된 남색 문단에 홍색 인조견 안감을 대고
금박을 찍었다. 앞뒤에 5봉, 3봉의 매듭술이 달려 있다.

77 조바위 매듭 술

20세기 초 Ornaments for Bonnet Silk

자색:총길이 41cm 술길이 5cm

오색:총길이 45cm 술길이 8.5cm

홍색:총길이 42.5cm 술길이 5.5cm

어린이 조바위에 장식하는 매듭술이다. 개인소장



78 굴레

1930년대 Bonnet for Children 겹 · 모본단

길이 21cm 둘레 37cm 끈길이 44cm

남녀아이들의 방한과 장식용 쓰개로 모본단에 모란, 연꽃 등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꽃을 풍성하게 수놓았다. 정수리에는 색실과 자수로 된 화판으로 꾸미고, 목다리 끝에는 느림 땀기를 별도로 달아 뒤로 제쳐 묶었을 때 안쪽에 보이는 수가 화려함을 한층 더해준다. 개성굴레로 땀기의 안쪽까지 정성스레 수를 놓고 장식하여 어머니의 숨씨와 멋을 발휘한 예술작품이다. 개인소장



79 풍덩이 風遮

20세기 Fur Lined Winter Hood for Children Silk 겹 · 모본단 문늬
길이 33cm 둘레 43cm

풍차와 유사한 모양의 어린이용 방한모자로 '풍덩이' 라고 한다.

이 모자는 풍차와 달리 정수리가 막혀 있고 안과 가장자리에 양털이 둘러져 있다.
자주색 모본단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을 수놓았고 뒤에는 작은 꽃무늬를 수놓은
덩기가 늘어져 있다. 양옆에 가는 끈을 달아 턱아래로 모아 쓰거나 뒤로 재쳐 묶어 준다. 개인소장



80 굴레

20세기 Bonnet for Children Silk 겹·모본단

둘레 35.5cm 끈 (5×39)cm×2

여아용 굴레로 머리부분을 청, 홍, 황, 녹색의 가닥으로 감싸고 가장자리를 검정색 모본단으로 둘러쌌다. 청, 홍색 끈을 두 가닥씩 늘어뜨려 묶을 수 있게 하였고 홍색 실로 술을 달았다. 정수리에는 붉은색 실과 비취, 호박으로 장식하였다.

81 굴레

1920년대말 Bonnet for Children Wool 전

홍색 전(氈)으로 만들어 연꽃 등 화문을 가득 수놓은 굴레이다. 끈이 소실되었다.



82 굴레

20세기 초 Bonnet for Children

어린이의 장식적 쓰개로 돌부터 4~5세 남녀 어린이 모두 착용하였다. 적·황·록·청·흑색의 화문단으로 만들었으며 앞은 붉은색 명주실로 장식하고 뒷면 밑단에 모란을 수놓았다.



83 복건·幅巾

1930년대 Bonnet for Boys Silk 홀·순인

길이 58cm 너비 22.5cm 끈길이 65.8cm 끈너비 5.3cm

머리에 착용하는 건의 하나로, 조선시대 사대부와 유생들이 심의(深衣), 학창의(鶴裳衣) 등과 함께 썼다. 오늘날에는 주로 명절이나 돌에 남자아이가 사귀삼이나 전복과 함께 착용한다. 옛 문헌들에는 주로 검은색 중(紺) 또는 사(紗)로 만든다고 기록되었는데, 이 유물은 검정색 순인으로 홀 바느질하였다. 머리 좌우에는 원형의 학문양을 금박하고 정수리에는 수자문(壽字紋)·초화문(艸花紋)을, 뒤통수에는 쌍봉문을 금박하였다. 끈과 둘레에 '자손창성·수복강녕·만수무강(子孫昌盛·壽福康寧·萬壽無疆)'과 수복문(壽蝠紋)을 금박하였다.

84 복건·호건 幅巾·虎巾

1937년 Hood for Boys 길이 63cm(복건) 59cm(호건)

복건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쓰개의 일종으로 금박으로 꾸민 것은 어린이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유물은 이마부분에 화문 옥판을 달아 장식하고 '수부귀(壽富貴), 다남자(多男子)' 등의 길상어문을 금박하였으며 1937년생이 착용한 것이다.

호건은 조선 후기 사대부 남자 어린이들이 썼던 것으로 복건과 비슷한 형태이나 머리 정상의 양 끝에 호랑이의 두 귀를 만들어 달고 눈, 코, 입, 수염을 수놓아 장식하였다. 호랑이처럼 씩씩하고 의롭게 자라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85 아기모자 帽子

20세기 Baby's Bonnet Cotton Crepe 면아사 크레이프직
높이 14.3cm 17.0cm 16.5cm

서양식 아기모자로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다.

소색 면 아사와 크레이프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1937년생이 쓰던 모자이다.



86 토시 套袖

1920년대 Wristlets Silk

길이 15.5cm(좌)

토시는 방한 목적의 실용성과 멋을 위해 팔목에 끼는 것으로
조선 후기부터 개화기에 사용하였다. 옥색 관사(官紗)에 안은
모시를 두어 겹으로 만든 춘추용이다.

87 토시 套袖

20세기 Children's Muff Silk 겹 · 문단 옥양목

길이 15cm 손목둘레 17cm

토시는 보온을 목적으로 손목에 끼우는 것으로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였다.
보라색 문단으로 만든 이 토시는 안감을 옥양목으로 하고 솜을 두었다.
소매 쪽이 징귀져 있다. 사전자수박물관 소장.



88 토시 套袖

19세기 Children's Muff Silk 겹·관사 무명
 길이 10cm 손목둘레 12cm
 어린이용 토시로 연두색 관사 위에 여러 가지 색사와
 금사로 수놓았다. 단추구멍이 있으며 단추가 달려 있던
 흔적이 있다. 사진자수박물관 소장.





89 타래버선 襪

20세기 초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아직 걸음을 잘 걸지 못하는 아기가 신던 버선이다. 버선볼과 코부분에는 장생을 기원하는 불로초문, 화문 등을 수놓고, 버선코에는 영화를 상징하는 삭모(髻毛)를 달았다. 뒤축에 끈을 달아 앞으로 돌려 매게 되어 있는데, 남자 어린이는 남색, 여자어린이는 홍색의 대님을 달았다.

90 타래버선 襪

1930년대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Cotton 겹·옥양목
발길이 13.5cm 높이 17.5cm 끈길이 27cm 끈폭 2.5cm 개인소장
타래버선은 주로 돌옷과 함께 신는 어린이용 버선이다. 버선목과 사선에 두툼 상침을 하고, 버선볼에 장생을 상징하는 불로초와 화문을 수놓았다. 코 부분에 남자아이는 남색, 여자아이는 홍색 실로 영화를 상징하는 삭모(髻毛)를 달았다.



91 누비버선 襪

20세기 Socks for Children Cotton 누비 견 · 옥양목

길이 29.5cm 목 10.5cm 회목 8.8cm

버선코에 빨강 상모가 달려있는 누비버선으로

아직 걸음을 걸지 못하는 갓난아기에게 신겼다.

홍색 꽃수가 화려하게 놓여있으며 0.5cm간격으로 누볐다. 개인소장.

92 타래버선 襪

19세기 말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Cotton 누비 옥양목 명주

대:길이 19.5cm 버선목 11cm 회목 9.5cm

소:길이 14.5cm 버선목 8.2cm 회목 6.5cm

흰 옥양목에 솜을 넣고 아기의 장수를 기원하며 누빈 버선으로

오목이라고도 한다. 0.5cm 간격으로 곱게 누벼져 있으며 발등과 볼에 씨앗수를 놓았다.

코에는 빨강 술(삭모)을 달고, 뒤축과 볼 수늬에는

붉은 실로 사뜨기를 하고 대님을 달아서 발목에서 묶을 수 있게 만들었다.

작은 버선은 1cm 간격으로 누비고 분홍 삭모를 달았다. 개인소장.



93 태사혜 太史鞋

1960년대 Shoes for Children 가족 비단

길이 21cm 폭 6cm

어린이용 태사혜로 연두색 비단과 가죽으로 만들고 굵은 실로 꿰매었다. 털로 된 깔창이 들어있다.



94 태사혜와 운혜 太史鞋 · 雲鞋

19세기 말 Shoes for Children Silk 가죽 신

태사혜:길이 15cm 폭 4.5cm

운혜:길이 14cm 폭 5cm 길이 12cm 폭 4.5cm

태사혜는 조선시대 사대부 양반계층의 남자들이 평상복에 신던 굽이 낮은 마른신의 하나이다. 왼쪽은 어린이용 태사혜로 연두색 비단에

가죽으로 신을을 만들고 밑둘레는 밀랍을 칠한 굽은 실로 꿰맸다.

앞코와 뒤축에 가죽으로 태사문(太史紋)을 장식하였다.

운혜는 양반 여성이 신던 신이다. 오른쪽은 어린이용 운혜로 태사혜와 같이 가죽과 초록색 비단으로 만들고 앞머구리와 뒷머구리를 홍색

비단으로 장식했다.



95 운혜 藝鞋

1970년대 Shoes for Girls 가죽 건
길이 14cm 길이 14cm

운혜는 구름무늬를 장식한 여성용 신으로 상류층 부녀자가 신었다. 겹은 분홍색 비단으로 만들고 안은 용으로 하고 신고와 뒤쪽에 초록색 비단을 대고 그 위에 남색비단으로 운문 장식을 하였다. 제비부리같이 생겨서 제비부리신이라고도 한다.

96 어린이나막신 木屐

20세기 Wooden Clogs Wood 나무
길이 16.5cm 너비 6.3 cm

1940년생 어린이가 신었다. 나막신은 비 오는 날에 신도록 굽을 높게 나무로 만들어 남녀 구별 없이 신었다. 이 나막신은 걸음마를 하는 아기용으로 아주 작다.

이
웃
나
라
어
린
이
옷

중국 어린이 옷

일본 어린이 옷

중국어린이 옷 화려하고 정교한 치장



97 배두렁이와 바지 肚兜開襠袴

1940년 이전 Belly Cover and Trousers for Babies Silk 견
 배두렁이: 길이 34.5cm 폭 42.5cm
 바지: 길이 47cm 허리둘레 64cm
 이 배두렁이는 2~3세의 중국 어린 아기가 입었던 것으로
 아기의 목과 등으로 끈을 매어 가슴을 덮을 수 있게 하였다.
 홍색 비단에 손으로 섬세하게 자수를 놓고 중앙에 속주머니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밑이 트인 푸른색 바지로 1950년대
 이후의 만주복식인데 요즘도 많이 입는다. 개인소장.

98 신발 繡花鞋

1953년 Shoes for Children 견 가죽
 길이 15cm 너비 6cm
 2~3세의 중국 부유층의 어린이가 신었던 신발로
 청색 비단에 분홍 꽃이 큼지막하게 수놓아져 있다.
 바닥은 뽕가죽으로 되어 있다. 개인소장.

99 중국 어린이 모자 帽子

20세기 Bonnet for Children Silk 공단

높이 16cm 둘레 51cm 앞길이 8cm 뒷길이 24cm

검정색 공단바탕에 머리둘레에 화문자수가 놓여있고 머리위에는 금사로 자수 장식된 공단 한 겹을 덧붙였다. 뒷면에 딸은 머리 장식이 달려있고 머리둘레에는 검정 술을 늘어뜨렸다. 개인소장.



100 상의 旗裝

1800년대 Chinese Jacket for Girls Silk 공단

길이 23.5cm 폭 22cm 화장 57cm

중국 청대 여자아이의 상의로 만주족의 팔기군(八旗軍)이 입은 옷에서 유래되었다. 만다린 칼라에 소매통이 좁으며 우임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앞길에는 좌우에 봉황을 화려하게 수놓고 길과 소매에 작은 꽃을 드문드문 수놓았다. 개인소장.





101 대금오 · 마갑 · 육합모 對襟襖 · 馬甲 · 六合帽

1950년대 이후 Blouse, Vest and Bonnet
for Children Silk

모자: 높이 16cm 둘레 51cm

대금오(對襟襖)는 평상시 입는 상의로 맞깃으로 가운데서 단추로 여민다. 대금오 위에 마갑(馬甲)이라는 조끼를 덧입는다. 육합모는 여섯조각의 천을 이어 둥글게 만든 검정색 소모자로 정수리에 홍색 방울을 달았다. 중국 청대(清代)에 대금오와 마갑을 입고 육합모를 착용하였다. 개인소장.





102 장오 長襖

19세기 말 Ordinary Coat for Children Silk 겹 · 공단 무명

길이 41.5cm 폭 30cm 화장 31cm

중국 어린이용 포로 홍색 단에 앞뒤로 봉황과 화문을 수놓고 파란색 깃에는 화문 당초를 수놓았다. 안감은 홍색 무명이고, 양옆에 11cm의 트임이 있다. 소매와 단에 레이스 장식을 덧대어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개인소장.

103 몽골 어린이 옷

‘дээл (deel, 델)’은 몽골의 전통 의상으로 평일과 특별한 날 모두 입는다.

‘дээл’은 길고, 느슨한 소매가 달린 하나로 마름질된 가운의 형태이다. 깃은 높으며 앞부분이 넓게 포개어진다. 몽골에 사는 각각의 인종들은 마름질, 색상, 장식에 의해 구별되는 고유한 ‘дээл’을 가지고 있다. ‘дээл’은 단순히 의복의 역할 외에도 여러 용도를 지니는데, 코트, 담요, 그리고 개방된 초원에서 불일을 볼 때 자신을 가리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일상용의 ‘дээл’은 회색, 갈색, 혹은 다른 어두운 색깔인 반면 명절용 ‘дээл’은 밝은 파랑, 녹색이거나 혹은 자줏빛 나는 은색이다. 몽골문화원 소장.





104 운견 雲肩

Children's Collar Silk 겹 · 공단

길이 57cm 폭 35.5cm

어린이용 운견으로 검은색 공단에 구름모양의 수가 덧붙어 있다. 착용했을 때 직사각형 자락이 등을 덮는다. 초전박물관 소장.

105 운견 雲肩

20세기 초 Lotus-shaped Collar for Children

겹 · 견 무명 직립 27.5cm 목둘레 9cm

중국 어린이의 목둘레 장식으로 남색 비단으로 만들어진 7장의 꽃잎 위에 인물을 소재로 한 풍속도를 수놓았다. 안감은 홍색의 거친 무명이며 목둘레에 검정색 천으로 아플리케 장식이 되어 있다.





106 배자 褙子

1940~50년대 Vest for Children

총길이 62cm 폭 35cm

요측의 배자로 진분홍색과 진갈색이 주조색을 이루며
직조된 다채색의 테이프로 장식되었다. 목둘레와 앞단은
흰색 엇선 옷감(바이어스 테이프)으로 감싸여 있고
흰색 매듭단추가 두개 달려있다.

107 조끼 褙子

20세기 Vest for Children

총길이 62cm 폭 35cm

청색 바탕에 모란문과 각종화문 자수가 놓여있고
진동둘레에 진분홍색 프릴이 달려있다. 초전박물관 소장.



108 포대기 背扇

Baby's Bedding Cotton

길이 71.5cm 폭 60cm

묘족이 쓰던 포대기로 장식적인 효과가 커서
어린이의 외투로도 이용하던 것이다.

109 포대기 背扇

20세기 Baby's Bedding Cottons

길이 72cm 폭 25cm

묘족은 끈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 다른 사람에게 줄때는
보통 끈을 떼어 놓는데, 이 포대기는 유일하게 끈이 달렸다.
검푸른 빛이 돌며, 직조한 테이프로 꼼꼼하게 선을 틀렀다.

110 포대기 背扇

20세기 Baby's Bedding Cotton 겹·무명

길이 99cm 폭 57cm 끈 57cm×2

아기를 업을 때 쓰던 묘족의 포대기로 아기를 눕힐 때는
갈래의 역할도 했다. 꼼꼼하게 손으로 짠 선을 매우 섬세하게
장식하였다. 포대기의 안감은 남색 무명이다. 초전박물관 소장.







111 중국 여아 모자 帽子

20 세기 초 Chinese Bonnet for Children

높이 16.5cm 둘레 51cm

우리나라 조바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 이 유물은 검정색 바탕에 비단실로 모란꽃을 수놓았다. 정수리부분에 주름을 잡아 진분홍색 천으로 정수리를 막았다. 앞부분에 은장식 3개가 달려있고 이마둘레를 따라 은색 징이 박혀있다. 뒤에는 홍색, 초록색의 술이 달려있다.

112 중국 남아 모자 帽子

20 세기 초 Chinese Headdress for Children Drill 솜·드릴 무명

길이 40cm 폭 23cm 뒷장식 길이 41cm

도톰하게 솜을 둔 검정색 모자로 전체적으로 은장식 16개가 붙어있다. 길감은 능직의 드릴이며, 안감은 홍색과 검정색의 체크무늬가 있는 무명이다. 이마 앞면에 9개의 불상(佛像)이 나란히 붙어있고, 둥근 꽃장식을 했다. 뒷면에도 원형 은장식이 붙어있는데 지름 5-6cm 크기의 장식 안에 복숭아나 호박 그리고 여러 문자가 새겨져 있다. 동물의 뼈와 이가 달린 체인장식을 달았다.





113 소모자 帽子

1949년 Bonnet for Children Silk 견

둘레 51cm 높이 13cm

요족 어린이 모자로 검은 비단 둘레에는 가느다란 직조 테이프로 장식되었다. 정수리에 주름이 잡혀있고 색실로 뜨개질한 장식이 되어 있다. 홍색 끈이 달려있다.

114 화모 帽子

1949년 이전 Bonnet with Embroidery Flower Cotton 무명

길이 41cm 높이 8cm 둘레 55cm

회족 어린이 모자로 도톰하게 솜을 둔 검정색 무명 바탕 위에 색실로 수놓았다. 앞뒤로 챙이 있는데 앞의 챙은 안쪽에 자수를 놓아 위로 젖혀 고정시켰다. 귀에서 뒷생까지 연결된 붉은 천을 덧대어 장식하고 테두리를 바이어스 처리했다.

115 화모 帽子

1949년 Bonnet with Embroidery flower and Birds Cotton 무명

길이 37cm 둘레 48cm 높이 9cm

회족 어린이 모자로 붉은 무명 바탕위에 색실로 모란과 새를 수놓았다. 앞에는 챙이 없고 뒤에는 목과 어깨를 살짝 덮을 정도로 길게 되어있다. 양쪽에 귀가 달려있는데 귀 끝에 방울이 달려있다. 테두리를 검정색 무명으로 바이어스 처리했다. 초전박물관 소장.



일본 어린이 옷 전통 축제 차림새

116 기모노 着物

20세기 Kimono Kimono Silk 합섬

길이 83cm 폭 37.5cm 화장 44cm

七五三 기모노

시치고산(七五三)은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7년) 이후 남자는 3세와 5세, 여아는 3세와 7세가 되는 해의 11월 15일을 전후하여 신사(神社)에 가서 어린이의 성장을 감사하고, 장래의 행복을 기원하는 습속이다. 3살이 된 남녀 어린이에게는 '가미오키(髪置: 3세 되는 해부터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르기 시작한다는 뜻)'를 하고, 5세 된 남자 어린이에게는 '하카마키(袴着: 무사들의 외레용 바지인 '하카마'를 입힌다는 뜻)'를 한다. 7세 된 남녀 어린이에게는 '히모오토시(紐落)'를 하는데, 남녀 어린이가 유년기에 하는 마지막 축하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일곱 살까지는 신의 어린이(神の子)'라 하여 유년기의 성장과정은 신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다.

따라서 7세 유년기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년 소녀기의 변환기의 의미를 띠는 것이다. 이 날 여자 어린이는 '오비토키(帯解)'라 하여 그동안 간단한 끈으로 옷의 허리를 조여 매던 돌미에서 처음으로 형겅으로 만든 띠, 즉 오비(帯)를 허리에 매고 지내게 된다. 이런 풍습은 귀족이나 무사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것이었지만,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민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오늘날에는 민간의 일반적인 풍습이 되었다. 개인소장





117 기모노 着物

7세 축일에는 소매가 긴 후리소데를 입고, 길이가 긴 예복용 오비를 허리에 매고, 손에는 주머니와 부채를 들고, 발에 다비(바선)와 조리(신)를 갖추어 신고, 머리는 위로 올려 머리장식품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개인소장.





118 오비

1972년 Decorative Belt for Children

대 91×17cm 리본 40×30cm

은회색에 주황색 학 무늬가 있는 오비이다. 기모노를 입고 허리에 장식하는 리본으로 7세의 여자어린이가 착용했던 것이다. 개인소장.

119 다비와 게다 足袋 下駄

Socks and Sandal 면 플라스틱

다비 18 cm 게다 길이 19.5cm 폭 7cm

다비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이 분리된 게다를 신을 때

신는 일본의 전통 버전이다. 이 다비는 두 겹의 면으로 되어있다.

발목 안쪽에 고리(hook)가 달려있어 신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다.

게다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도금된 방울이 하나씩 달려있다. 개인소장.





120 유카다 浴衣

1970년대 Robe for Children Cotton 면

길이 83cm 폭 37.5cm 화장 44cm

유카다는 일본의 기모노를 실용적으로 만든 옷으로 실내에서 입을 수 있다. 이 어린이용 유카다는 여름용으로 목욕 후에 입기도 했다. 개인소장.

121 합비 法浴

1976년 Summer Festival Costume for Boys Cotton 홀·면

길이 45cm 폭 35cm 화장 33cm

'합비코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물은 '마쓰리' 용으로 무늬가 프린트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짧은 바지나 긴 바지와 함께 입는데, 왼쪽이 위로 오게 여미고 허리띠를 두 번 매고 뒤로 돌린다.

이 합비는 5세의 남아용으로, 매년 7월 15일경에 열리는 여름 축제 때 입는 것이다. 머리둘레에는 실로 끈 머리띠나 '마쓰리(祭)'라고 쓴 흰 띠를 두르기도 한다. 개인소장.

부록

한국의 전통 어린이 옷

조 효 숙 | 경원대 의상학과 교수

1. 머리글

우리나라의 어린이 복식은 다른 나라의 어린이 복식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미적 특징을 갖고 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들의 민간신앙 속에는 인간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기복사상이 항상 내재되어 왔는데 특히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들의 간절한 염원을 어린이 옷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표현하였다.

따라서 어린이 옷에는 한복이 갖고 있는 여러 미적 가치 중에서도 '상징의 미'가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정성어린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지어낸 전통 아동복 속에는 좋은 의미를 지닌 길상식 물이나 동물의 형태를 아름답게 재구성하여 장식하였음은 물론 색상의 선택이나 바느질 방법까지에도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현대인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 복식사 학계에서는 아동복에 관한 문헌자료가 많지 않고 실물자료도 개화 이후의 근세복식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전통 아동복을 주제로 한 전시나 자료집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9년 문화재청 궁중유물 전시관에서 『조선후기 궁중복식』을 발간하였는데 비록 아동복만 별도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실 어린이 옷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 하겠다. 다음으로 2000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에서 '어린이 복식 특별전'과 함께 『한국 전통어린이 복식』이 출간되었으며, 2003년에는 17세기 말기의 어린이 복식이 처음으로 미라와 함께 출토되어 '350년 전 소년 미라와 기족사랑' 전시와 함께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에 더하여 경운박물관에서는 개화기 이후 50 여 년간 입혀졌던 전통 어린이 옷들을 모아 '옛어린이 옷-그 소중한 어여쁨'이라는 전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의 의생활이 서양식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격동의 반세기 동안에도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중하게 지켜온 안동김씨, 여흥민씨, 임천조씨, 파평윤씨 태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입혀졌던 어린이 옷이 전시되어 근대사회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버린 반가(班家) 어린이 옷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다.

또한 일본, 중국, 몽골 등과 같은 우리와 밀접한 문화교류가 있었던 주변 국가의 아동복도 함께 전시하여 우리 어린이 옷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글에서는 경운박물관에서 전시할 반가의 어린이 옷 유물들, 근세 사진자료들, 왕실의 어린이 옷과 『불기』기록 등을 통하여 전통 어린이 옷을 출생의례복, 명절복, 평상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형태적 특징과 함축된 상징적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출생 의례북

2.1 돌 옷

출생의례는 어린이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한 의례로서 제일 큰 의례는 첫돌 맞이이며 그밖에 삼칠일, 백일 등이 있다.

돌은 출생 후 1주년이 되는 날로 일년 동안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떤 의례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첫돌 의례에는 아기에게 정성껏 준비한 돌옷을 입히고 돌상(床)을 차려 돌잡이를 한다.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¹⁾에는 아기를 낳은 지 한 돌이 되면 새 옷을 만들어 입히고 단장시킨다고 하였으니 돌옷을 만들어 입히는 전통은 매우 오랜 역사를 이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잡이 풍속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552년의 『양아록(養兒錄)』²⁾과 1598년의 『쇄미록(瑣尾錄)』³⁾에는 첫돌에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고 무엇을 잡는가를 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16세기경에 반가(班家)에서 첫돌잡이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후기 김홍도를 비롯한 화가들이 사대부들의 일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그린 평생도(平生圖)에도 첫돌 의례는 반드시 들어있어 역시 돌을 인생의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김을 알 수 있다.

한편 왕가에서는 첫돌을 초도(初度)라 불렀는데 태종 12년(1412)에 아들 종(種)의 초도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⁴⁾ 이날은 임금의 어린 아들 종의 초도이므로 초례를 베풀어 장수를 빌었다고 하여 아기의 장수를 위한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돌 의례에 입히는 복식은 삼칠일이나 백일 옷에 비하여 종류도 많고 색도 다양해지며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의 의복을 확연하게 구분하기 시작한다. 돌옷에는 장수와 부귀를 기원하기 위하여 십장생이나 모란꽃



〈그림 1〉 남자아이 돌차림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그림 2〉 모당 홍이상 평생도에서 돌맞이 『조선시대풍속화』



〈그림 3〉 여자아이 돌차림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속 생활과 풍속편

1) 이수광(1614) 『지봉유설(芝峯類說)』 권 17 인사부.

2) 이문건 저, 이상주 역(1997), 『양아록(養兒錄)』, 태학사, p. 48.

3) 오희문 저, 이민수 역(1990), 『쇄미록(瑣尾錄)』, 해주오씨추단동파종중, 하권 1598년 8월 18일.

4) 『태종실록(太宗實錄)』, 12년 11월 4일.

과 같은 길상을 뜻하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수를 놓거나 형태를 모방하여 장식하였다.

또한 색상에서도 간색(間色)을 지양하고 정색(正色)에 해당하는 선명한 색상을 예쁘게 구성하여 어린이의 단순하고 천진한 모습과 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특히 돌옷을 대표하는 색동은 오방색 중에서 검은색을 제외한 홍, 황, 청, 백색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분홍이나 자주, 초록 중 한두 가지 색을 더 넣어 음양 오행사상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조화를 이루도록 배열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의미 이외에도 색동은 시각적으로 아롱진 무지개를 연상하면서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게 하므로 예로부터 어린이 옷에 애용되었다.

돌옷 일습을 이루는 의복의 종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남자아기는 머리에 호건이나 복건을 쓰며 옥색저고리에 보라 풍차바지를 입고 그 위에 색동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와 전복을 입는다. 전복 위에는 돌띠를 묶고 돌 주머니나 액을 막는 궤불을 달아주며 타래머선과 갓신을 신긴다.

그렇다고 반드시 남자 아기의 돌옷이 이처럼 정형화되지는 않았다. 1781년 김홍도가 그린 <그림 2>의 '모당 홍이상의 평생도'에 돌을 맞이한 남자아기는 양반가의 자녀임에도 복건과 두루마기 없이 색동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굴레를 쓰고 있다. 또한 1920-1950년간의 일반가정의 돌옷 조사연구에 의하면 색동저고리와 풍차바지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때로는 색동저고리 대신 민저고리 위에 색동마고자를 입는 경우도 있다. 복건, 까치두루마기⁵⁾, 전복의 일습은 지극히 상류층에서만 입혔다. 여자아기도 일반적으로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를 겹옷으로 입히고

속옷으로는 분홍색 풍차바지나 노란색 단속곳을 입히는 것이 정형화 되었으며 좀 더 격식을 갖추는 집안에서만 겹옷으로 색동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를 더 입히고 조바위나 굴레를 씌워 준다 <그림 3>.

순조대인 19세기 말기부터 순종대인 20세기 초기까지 100여 년간 왕과 왕비, 왕자, 공주 등을 비롯하여 궁중 안에서 소요되는 물품 목록을 적은 『별기』에는 왕실의 복식에 관한 기록이 있다. 왕실의 돌 옷은 1898년의 「무술 구월 아기시 돌 생신 의복 별기」⁶⁾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영왕(英親王)이 1897년 10월 20일에 태어났으므로 이 별기는 영왕의 것으로 생각된다. <표 1>에서와 같이 머리에는 복건을 쓰고 바지

〈표 1〉 무술 구월 아기시 돌 생신 의복 별기 (1898.9. 영왕 돌복)

종류	명칭	색	옷감
쓰개류	복건	아청	인문사 / 옥판, 석웅황
포류	사규삼	남송	속갑사
	괘자	양남	별문갑사
	잔누비주의	분홍	장원주
배자류	잔누비배자	양남	속갑사
저고리류	잔누비동의복		
	동다리잔누비동의복	분홍 두록	삼팔주 장원주
	민동의복	옥색	수화주
바지류	잔누비바지	백	삼팔주
	잔누비바지	백	서양사
	쟁민바지	백	삼팔주
기타	누비천의	자적	수화주
	행전	-	저포
	오목이	-	

5) 김정아(2004)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6) 장서각편, 「무술 구월 아기시 돌 생신 의복 별기」,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권12, 정신문화연구원.



〈그림 4〉 덕혜옹주 돌 사진,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

저고리위에 민간에서 두루마기라 부르는 주의를 입으며 쾌자나 사규삼을 더 입는다. 쓰개로는 복건을 준비하였는데 민간에서 쓰는 호건은 왕실에서는 쓰지 않았다.

복건은 아청색 인문사로 만들고 쾌자나 배자는 주로 밝은 남색인 양남색으로 하였는데 양남색은 개화기 무렵 서양에서 들어온 합성염료로 염색한 남색으로 전통 남색보다 밝은 남색을 호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둥근 원형무늬가 듬성듬성 있는 별문갑사나 숙갑사로 만들었다. 주위는 분홍색 장원주로 하여 곱게 누벼주었다. 저고리는 분홍, 두록, 옥색으로 하였으며 장원주, 수화주, 삼팔주 등의 명주 종류로 만들고 겹이나 누비바느질 하였다. 저고리에는 단색으로 한 민저고리 이외에 동다리 저고리 즉 소매를 다른 색으로 한 저고리도 있었으나 민간의 옷과는 달리 두루마기나 저고리에 색동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백일옷과 같이 바지는 모두 백색이며 삼팔주와 서양사를 겹이나 잔누비바느질 하였다.

돌 옷은 백일 옷에 비하여 남송색 숙갑사로 만든 사규삼이 한 벌 더해졌고, 걷기 시작하면서 팔력은 바지통을 고정시키기 위한 모

시 행전이 추가되었다.

또한 『조선조후기궁중복식(朝鮮朝後期宮中服飾)』⁷⁾에는 1932년(소화 7년)12월에 쓴 영왕의 2남인 구(玖) 왕자의 돌옷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앞의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 별기」에 비하여 관복인 공정책, 자적용포, 백옥대, 배옥규가 추가되었다. 관복을 제외하고 평상복만을 비교해 보면 두 발기의 내용에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몇 점의 의복에서 당시 복식의 유행이 반영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개화기 서양 양복의 조끼에서 영향을 받아 배자 대신 유행하였던 조끼가 '족기'로 기록되어 처음으로 나타나며 배자에 관하여도 영왕의 「무술 구월 아기사 돌 생신 의복 별기」에는 간단히 양남색 배자로 기록되었으나, 구왕자의 기록에는 '남송색동부금동배자'라 하여 전과 다른 새로운 기록이 들어 있다. 이 옷은 남송색 길에 금박 한 색동 마고자(소매달린 배자)로 해석되며 이번 전시의 반가 어린이옷에도 금박 짙은 색동 마고자가 여러 점 있는데 이 무렵부터 유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왕실 여자아이 돌 옷에 관하여 『별기』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으며, 단지 김용숙의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朝鮮朝宮中風俗研究)』⁸⁾ 사진도판에 덕혜옹주의 돌 사진(그림 4)과 일본 문화여자대학에 소장된 덕혜옹주의 유물들이 남아있다.⁹⁾ 이를 통해 볼 때 옹주의 돌옷 차림새는 반가의 여자아이 돌옷과 달리 머리에 는 화관을 쓰고 스란치마저고리에 부금한 당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7) 궁중유물전시관(1999)편, 『조선조후기궁중복식(朝鮮朝後期宮中服飾)』, p210.

8) 김용숙(1987), 앞의 책, 사진도판.

9) 석주선(1991), 「일본 문화여자대학 복식박물관 소장 덕혜옹주 유물소고」, 『한국복식(韓國服飾)』 9,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민속박물관.

2.2 돌옷의 종류 및 상징성

이번 조사를 통하여 남자 아기 돌옷의 형태 및 구성은 반가와 왕실의 돌 옷 종류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개화기 이후에 조선왕조가 붕괴되고 민간의 복식금제가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례복이나 돌옷과 같은 특수복을 마련할 때 왕실의 복식제도를 모방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민가에 전해오는 색동이나 자수까지 더하여 왕실 옷 보다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였다. 돌에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 및 상징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복건

복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나 유생들이 심의나 학창의와 함께 썼던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이다. 어린이용은 어른 것과는 달리 길상문자와 박쥐, 국화문 등을 금박하여 건강과 장수,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사대부가에서는 복건에서 귀엽게 변형한 형태인 호건이라는 쓰개를 씌우기도 하였는데 머리

양끝에 호랑이의 귀를 만들어 달고 눈, 코, 입, 수염 등을 수놓아 호랑이처럼 씩씩하고 영리하게 자라기를 바랐다.

② 굴레

아이들의 방한모 겸 장식용 쓰개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맞이한 아이가 많이 쓴다고 하여 돌모자라고도 부르며 3-4세까지 남녀어린이 모두 썼다. 그러나 **『열기』**에 따르면 왕실에서는 아기의 삼칠일에 이미 굴레를 장만하여 씌웠다. 여러 색상의 공단이나 갑사로 만든 끈을 3가닥에서 9가닥까지 세로 방향으로 연결하고 정수리 에는 자수 및 오색실로 장식하였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굴레에는 대체로 모란꽃을 화려하게 수놓은 드림땡기를 별도로 달아주어 미적 효과와 더불어 아기의 부귀한 삶을 소망하였다. 개화기 이후 굴레가 한참 유행일 때는 엄마가 정성껏 만든 굴레 이외에도 굴레를 생산하는 공방이 있어 그곳에서 다량 생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현재 동일한 모양의 굴레 유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③ 저고리

저고리는 일상저고리와 형태는 같으나 눈에 띄는 고운 색으로 고름을 길게 달아주어 가슴을 한번 감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에

〈표2〉 玖 왕자(英王 2男) 돌옷 (소화 7년 12월)

종류	명칭	색	옷감	비고
쓰개류	공정책			
	복건	아청	별문단/부금	
규	규	-	백옥	
대류	옥대		백옥	
	술띠	분홍		
	전대	다홍	대화단/부금	
	요대	남	숙수	
포류	용포	자적	도류탄	
	내작	홍	운문숙사	
	사급삼	초록	대화단/부금	
	창의내작	다홍	대화단	
	쾌자	남	자순수/부금	
	주의	회아	대화단	
	검주의	분홍	별문숙사	
조끼류	조끼	남	자순수/부금	
배자류	동배자	남송	색동/부금	
저고리류	동의대	분홍	별문우이중	
	누비동의대	남송길 다홍동	우이중	
바지류	바지	백	숙수	
	누비바지	백	별문우이중	
기타	태사혜	-		수남에는 순금거북
	허자(화자)	-		1개, 순금사장 1쌍
	행전	백		순금고두쇠 1쌍
	수족건	-		순금천도방울 1쌍,
	수남	다홍		순금괴불 3개가 부착

편하고 장식적이 효과도 준다. 걸감으로 분홍이나 옥색 비단을 쓰고 안은 얇은 옥양목을 넣은 것이 가장 많다. 계절에 따라 홑, 겹, 누비, 솜 등 다양하게 바느질을 한다. 색동마고자나 까치두루마기 속에 입을 때는 민저고리를 입히지만 마고자나 두루마기 없이 저고리만 입힐 때는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힌다. 민씨택 유물 중에는 오방장두루마기 구성과 같이 초록 길에 걸썬은 노란색, 안섶과 소매는 진분홍색을 대어 색색으로 귀엽게 만든 것도 있다.

④ 풍차바지

앞은 일반 바지와 같으나 뒤가 트이게 만든 바지로 앞은 보통의 바지와 같이 마루쪽에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붙이고 뒤쪽은 양쪽 마루쪽에 밑을 각각 달아서 좌우가 벌어지게 만든다. 사폭을 이은 다음 솜을 두고 어깨허리를 달아 뒤에서 여며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지 부리에는 남색 대님을 달아 바지통을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운 박물관에 남아있는 풍차바지의 유물들은 명주, 향라, 숙고사 등 견직물로 겹을 하고 안감은 무명이나 옥양목을 댄 것이 많다. 바느질은 겹이나 누비로 한 것이 많고 겨울에는 솜을 두어 따뜻하게 만든 것도 있다. 뒤가 터져서 기저귀를 갈거나 용변을 보기에 편리하므로 혼자 용변을 볼 수 있는 2~3살까지는 평상복으로 남녀 아기 모두 풍차바지를 입혔다.

무형문화재 침선장인 정양원 할머니에 의하면 아들이 누비바지는 큰사폭과 작은사폭을 대어 만드는데 여자아기는 대님을 매지 않으므로 길이를 남자아기보다 약 두치정도 짧게하며 큰사폭과 작은 사폭을 대지 않고 마루쪽을 넓게 달아준다고 한다.¹⁰⁾

⑤ 치마

여자 어린이가 돌이 되면 처음으로 치마를 입혀 남자 옷과 구별하였다. 돌치마는 어른의 치마형태와 같으나 크기가 작을 뿐이다. 주로 다홍색이나 진분홍색으로 하는데 겨울에는 양단, 봄가을에는 숙고사나 국사, 여름에는 생고사나 순인으로 만들고 스란 단에 금박을 하여 화려하게 꾸며준다. 치마 속에는 분홍색 풍차바지나 노란색 단속곳을 입히기도 한다.

⑥ 사규삼

사규삼은 『사례편람』에 의하면 관례전 동자복으로서 결과삼(缺胯衫)이라고도 한다. 소매가 넓고 대금형 깃을 달고 뒷 중심과 양옆의 겨드랑이가 터진 포로 깃, 도련, 소매끝, 옆선에 금릉(錦綾)으로 선을 두른다고 기록되었다.¹¹⁾ 그러나 전제되는 조선 말기의 유물들은 검정색 사(紗)나 단(緞)으로 선을 두르고 그 위에 길상을 뜻하는 글씨나 박쥐문 등을 금박한다. 뒷중심은 트임을 준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에 따라 트임이 없는 것도 있다. 사규삼 속에는 창 의 혹은 두루마기를 받쳐 입는다.

⑦ 전복

전복은 원래 조선시대 문무 관리들의 포 위에 덧입는 옷이었으나 후대에 남자 어린이 돌옷이나 명절옷으로 입혀졌다. 깃과 섶, 소매가 없고 길에는 좋은 의미를 담은 글자와 박쥐, 국화문 등의 금박을 찍어 장식하였다. 앞 중심선에 2개의 단추를 채워 입었으며 가슴에는 홍색의 전대나 술띠를 띤다.

10) 국립문화재연구소편(1998), 『침선장』, pp. 58-63.

11) 李 緯 (1884), 『四禮便覽』.

⑧ 쾌자

전복과 형태가 유사하여 섶과 소매가 없으며 앞중심선에 2개의 단추를 채워 입는다. 전복과의 차이점은 전복은 깃이 없는데 반하여 쾌자는 배자형 맞깃이 있다. 전복과 형태가 유사하여 후대에는 혼돈되어 호칭되었다.

⑨ 까치두루마기

색동두루마기에 속하며 길, 섶, 무, 고름 등에 다섯가지 오방색 옷감을 모아서 만든 것은 오방장두루마기라고도 하며 까치섶날 입었다고 하여 까치두루마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명칭은 민간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말기 왕실의 의복 종류와 옷감들을 기록한 『불기』에는 이와 같은 명칭은 없다. 길은 연두색, 섶은 노랑색, 무는 자주색, 소매는 색동으로 한다. 단 깃과 고름에서 남녀 차이를 두는데 남자아이는 남색, 여자아이는 홍색으로 하였다. 유물 중에는 색동소매에 오방색을 갖춘 것이 많지만 후대로 갈수록 오방색의 조합을 맞추지 않고 초록길에 소매만 색동으로 하거나 섶 부분을 색동조각으로 이은 것 등 변형된 것이 많아졌다. 민속조사에 의하면 개성지방의 오방장두루마기는 대부분 연두 길, 노랑 섶, 자주 무를 하고 소매에 색동을 쓰지 않고 홍색으로 했다.¹²⁾

⑩ 마고자

저고리와 비슷한 형태이나 깃이 없고 맞섶을 달았으며 앞 중심에 2개의 단추를 채워 입는다. 아동복은 19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어른의 마고자와 달리 분홍, 연두, 옥색 길에 색동소매를 달아 귀여움을 표현하기도 하며 초록길에 다홍 소매를 단 동달이 마고자도 있고 오방장 두루마기에서와 같이 섶만 노란색으로 대준 것도 있다. 돌날 오방장두루마기 대신 간단히 색동마고자를 입히기도 한다.

⑪ 배자

배자는 저고리 위에 덧입었던 옷으로 소매와 섶, 무, 고름이 없으며 앞중심에 맞깃을 달았고 여밈은 단추 2개를 채워 입거나 긴 고름을 달아서 가슴을 한바퀴 돌려 묶어 입었다. 저고리 위에 착용이 편리하도록 양 옆에 트임을 주었다. 1930년 경부터는 서양식의 조끼가 유행하면서 점차 배자의 착용이 줄었다. 경운박물관 유물에는 대부분 1920년대 이후의 것이 많으므로 배자 대신에 조끼가 많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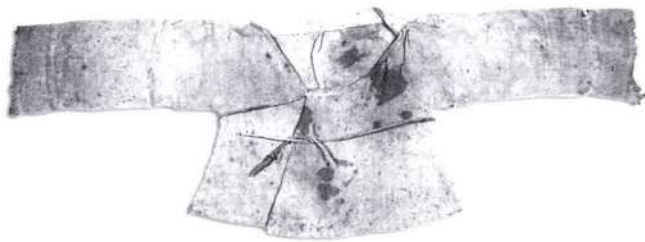
⑫ 타래버선

숨을 두어 누벼서 만든 어린이용 버전이다. 대부분 회목 부분을 절개한 후 누비천을 사선으로 연결하였다. 회목에는 남색이나 홍색의 대님을 달아 버전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였으며 양 볼에 색실로 예쁜 무늬를 수놓고 코에는 다홍색 혹은 남색의 술은 달았다

⑬ 돌띠

어린이의 첫돌에 전복이나 두루마기 위에 띠는 것이다. 왕실 돌옷을 기록한 2건의 『불기』에는 홍색 전대만 쾌자의 일습으로 들어있을 뿐, 수놓은 돌띠 기록이 없다. 이로 미루어 민간의 풍습에서 첫돌을 축하하며

12) 리순신, 리금산편(1994), 조선의 민속전통 2 옷차림풍습,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그림 5〉 17세기 후기 배냇저고리 『남아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아기에 대한 바람을 장식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된다. 돌띠의 아랫단 끝에는 콩, 팥, 쌀 등의 곡물을 홍색 한지에 싸 넣은 작은 주머니를 달아주어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다.

⑭ 돌 주머니

돌옷에 채워주는 주머니로서 염낭이라고도 하며 오방색을 이어 만든 것은 오방낭, 수를 놓은 것은 수낭이라고도

한다. 주머니에는 역시 길상을 뜻하는 무늬를 자수하였고 주머니 윗부분에 색실을 꿰어 아구리를 오르라르게 하였다. 돌주머니 끈에는 은칠보나 금으로 만든 도끼, 나비, 북, 꿩, 방울, 물고기 등을 만들어 달았는데 장수와 복을 바라며 악귀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 줄 것을 바라는 의미를 내포하였다.

2.3 출생과 삼칠일옷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느 지방에서나 공통적으로 입혔던 옷은 배냇저고리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풍속은 지금처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며칠은 부드러운 형겔이나 솜으로 아기를 씻겨서 강보(綱褌)에 싸고 명주 끈으로 어깨와 허리를 가볍게 매어 주었다.¹³⁾ 또한 침선장 정정완은 햇숨에 참기름을 묻혀 입과 귀, 겨드랑이와 오금에 낀 것을 닦고 배꼽 위에는 쑥주머니를 올려놓은 후 무명 겹 포대기에 싸 어깨와 배, 다리를 세 번 매어준다고 한다.¹⁴⁾ 쑥주머니는 고운 무명이나 베로 만드는데 솜 위에 쑥 잎을 편 후 사방 7cm크기의 사각형 주머니에 25cm 길이의 끈을 달아준다. 이처럼 일주일 정도를 포대기로 싸주고 끈으로 묶어주는 것은 아기의 몸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허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7일이 지난 후 목욕을 시키고 배냇저고리를 입히는데 형태는 일반적으로 소매를 길게 하고 깃과 셔를 달지 않으며 고름도 몸에 백이지 않도록 실고름을 길게 달아주었다. 고름 디자인 하나에도 실용성 이외에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형겔고름 대신 실고름을 다는 이유는 아기의 수명이 실처럼 길게 이어지기를 바람이며 따라서 가슴을 한 차례 둘러줄 수 있도록 길게 하였다. 함경도 지방에서는 아기가 80세까지 수명장수하기를 바라면서 80가닥으로 달아주기도 하였다. 옷감은 신생아의 맨살에 직접 닿는 옷이므로 일반적으로 고운 무명으로 만들지만 부유한 가정에서는 명주로도 만들었고, 집안에 따라서 장수한 노인의 옷을 잘라서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삼베로 만들었는데 태어날 때 입는 옷을 통하여 삼베의 자극을 참아내는 인내심을 길렀다고 한다.¹⁵⁾

13) 유희경(1998), 『출산의례에 따른 복식』,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 p.2

14) 중요무형문화재편(1998) 앞의 책, pp. 58-63.

15) 제주도 박물관(2002), 『제주의 삶 제주의 아름다움』, pp. 9-11.

가장 오래된 배넛저고리의 유물은 <그림 5>의 17세기 후반의 묘로 추정하는 양주의 해평윤씨 아기 미이라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명주 2겹으로 만들었으며 앞이 길고 뒤가 짧아 누워 있기에 편리하게 만들었다. 작은 직선 깃이 고대 부분에만 짧게 달려있고 양쪽의 옆선에 1.5cm의 트임을 주었으며 화장이 길어 손을 가릴 수 있게 하였다. 고운 흙질로 바느질한 후 외곽선을 상침하였다.¹⁶⁾ 이 저고리에는 폭 2.3cm, 길이 35cm가 되는 형짚 고름이 옷에서 떼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따라서 배넛저고리에 실고름을 다 풍습은 이 즈음 보다 나중에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배넛저고리를 입히는 시기는 정해진 것은 아니나 오희문의 『쇄미록(瑣尾錄)』에는 “오늘이 곧 새로 난 아이의 3일이니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¹⁷⁾ 라고 하였으며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초 칠일을 ‘한닐헤’라 하여 이날에 쌀깃(襁褓)을 벗기고 깃없는 옷을 입히고 동여 매었던 팔 하나를 클러 주며…”¹⁸⁾ 라고 하였으므로 지방에 따라 약간에 차이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꼽과 배를 따듯이 하기 위하여 남녀아기 모두에게 두렁치마를 입히는데 소재의 명주나 고운 무명을 2~3폭 이어서 곱게 누벼 마치 어른의 치마와 같이 만든 것이다. 두렁치마는 간단히 두렁이라고도 하는데 입히는 시기도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에는 “이칠일은 ‘두닐헤’라 하여 깃 있는 옷 위에 두렁이를 입히고 한쪽 팔을 마저 풀어주며 활개를 다 놀리게 하며 삼칠일에야 비로소 저고리와 바지의 구양(具樣)한 의복을 입혔다.”¹⁹⁾ 고 하였다. 따라서 두렁치마는 14일이 지난 다음에 입히고 형태

를 제대로 갖춘 바지 저고리는 세이레가 되는 삼칠일 날에 대문을 열고 인줄을 풀 다음 입히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삼칠일이 되면 백색의 고운 무명이나 명주로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에게 아기의 첫 선을 보였다.

그런데 『불기』 기록에 의하면 왕실에서는 아기의 삼칠일이 되면 색단 굴레와 고운색의 배자, 저고리, 백색의 바지, 두렁이, 오목이 등을 준비하였다. 백색의 바지저고리 정도만 입혔던 민간의 풍습과는 달리 색이 있는 저고리와 바지는 물론 머리에 쓰는 굴레와 덧옷으로 입는 배자까지 제대로 갖춘 아동복을 입혔음을 알 수 있다.

〈표3〉정유 십월 십오일 황자아기시 삼칠일 의복하온 불기 (1897.10.15)

종류	명칭	색	옷감
쓰개류	색단굴레	아청	갑사/옥판
배자류	배자	양남	별문숙사 인화문사
저고리류	누비저고리	분홍	수화주
	누비저고리	두록	수화주
	민저고리	옥	화주
바지류	누비바지	백	정주
	누비민바지	-	서양사
	민바지	-	서양사
기타	누비두렁이	-	옥양목
	오목이	-	-
	누비천의	초록	수화주
	누비요	-	서양목

1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2002), 『남아 미라 및 출토유물 연구논총』, pp.286-287.

17) 오희문 저, 이민수 역(1990), 앞의 책, 1600년 5월 4일.

18) 최남선(1947)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편, 동명사, P.46.

19) 최남선(1947), 앞의 책, 풍속편, P.47.

〈표 3〉은 광무 원년(1897)에 쓴 「정유 시월 십오일 황자 아기시 삼칠일 의복하온 불기」²⁰⁾로 영왕의 것으로 생각된다. 영왕의 생일이 1897년 10월 20일 이므로 탄일 5일 전에 작성하였는데 아기 옷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므로 성별은 알 수 없으나 미리 아들과 딸의 발기를 모두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불기』에 따르면 삼칠일 아기의 굴레는 아청색 갑사로 만들로 정수리에 옥관을 달았으며 배자는 양남색 별문숙사와 인화문 숙사로 만들었다고 한다. 저고리는 분홍색, 두루색, 옥색 등 연한색의 수화주나 화주와 같은 명주 종류로 장만하는데 3벌 중 2벌은 누비이다. 바지는 저고리와는 달리 모두 백색으로 하였으며 역시 2벌은 누비바지이다. 배를 가리는 두렁이와 버선인 오목이는 옥양목으로 하였으며 두렁이는 누벼주었다. 〈그림 6〉은 고종의 후궁이었던 보현당 소생의 우(瑀)왕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기 전에 굴레를 쓰고 분홍저고리에 흰바지를 입고 오목이를 신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6〉 우(瑀)왕자
『조선조 궁중 풍속연구』

2.4 백일옷

백일은 아기가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잘 자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부모들은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이다. 최남선은 『조선상식(朝鮮常識)』에서 “백일이 되면 사망률이 많은 시기를 넘어설 뿐 아니라 아기도 사람을 반겨 방실방실 거릴 줄 알아 부모의 기쁜 마음을 표하는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기고 행하여 온다.”²¹⁾ 고 하였으니 “백일잔치는 예로부터 전례 되는 관습이었던 것이다.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이때까지도 남녀 모두 백색의 저고리와 풍차바지를 입혔다.”²²⁾ 우리 민족은 원래 백색을 선호하였고, 게다가 어린 아기 옷은 더욱 위생적이어야 했으며 순순한 아기의 모습에도 잘 어울리므로 백색 옷을 입히는 것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다. 저고리 형태는 남아 여아의 구분 없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깃과 셔를 달고 긴 고름을 달아 가슴을 한번 돌려 앞에서 묶어준다. 봄, 가을, 겨울에는 고운 무명이나 명주를 누벼서 만들고 여름에는 향라나 고운 모시를 다듬어 겹으로 만든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는 백세까지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백 줄을 누비거나 백 조각의 천을 이어서 만들어 입혔다고 한다. 한편 왕실에서는 일반인들의 백일옷과는 달리 다양한 색옷을 입히는데 복건, 쾌자, 주의, 배자, 저고리, 바지, 행전, 오목이 등을 일습으로 갖추어 준비하였다.

20) 장서각편, 앞의 책, 「정유 시월 십오일 황자 아기시 삼칠일 의복하온 불기」.

21) 최남선(1947), 앞의 책, pp.85-86.

22) 김정아(2003),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광무2년(1898)에 쓴 「무술 사월 아기사 백일 의복 발기」²³⁾에 의하면 복건은 아청색 인접문사로 만들고 쾌자나 배자는 주로 밝은 남색인 양남색으로 하였다. 양남색은 기존의 전통 남색보다 밝은 남색으로 합성 염료로 물들인 남색을 호칭한다고 생각된다. 주의는 두록, 분홍색으로 하였다. 쾌자, 배자, 주의 옷감은 별문숙사, 갑사, 춘인문사, 광사, 인화문사 등 모두 얇은 사종류로 만들었는데 백일이 봄철이기 때문이다. 저고리는 분홍, 두록 옥색으로 하며 사종류 보다는 장원주나 수화주와 같은 명주로 만들고 겹이나 누비바느질을 하였다. 바지는 다른 옷들과는 달리 모두 백색이며 수화주와 정주와 같이 명주 종류와 옥양목이나 서양사와 같은 면직물로 만들었다.

삼칠일 의복에는 오목이 버튼만 준비되었으나 백일이 되면 걸어다니지는 못해도 행전 1쌍을 상징적으로 준비하였다. 의복을 입는 순서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주의(두루마기)와 쾌자를 입으며 대홍색 갑사로 만든 전대를 일습으로 갖추었으며 오목이 버튼을 신고 바지에는 행전을 띠었다.

「정유 시월 십오일 황자 아기사 삼칠일 의복하온 발기」에 기록된 삼칠일 의복과 차이점은 쓰개로 굴레 대신에 복건을 준비하였고 쾌자와 주의 등의 포류가 추가되어 백일 부터는 좀더 격식을 갖춘 일습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무술 사월 아기사 백일 의복발기 (1898. 4)

종류	명칭	색	옷감
쓰개류	복건	아청	인접문사/옥판, 석웅황
포류	쾌자	양남	별문숙갑사
	동다리잔누비주의	두록	갑사/다홍갑사전대
	쾌자 단주의	양남 분홍	순인문화사 광사/다홍광사전대
배자류	잔누비배자	양남	갑사
	배자	초록	인화문사
저고리류	누비저고리	분홍	장원주
	동다리누비저고리	두록	장원주
	겹저고리	두록	수화주
	겹저고리	옥	광사
	민저고리	옥	장원주
바지류	누비바지	백	수화주
	쟁겍바지	백	정주
	누비바지	-	옥양목
	민바지	-	서양사
기타	행전	-	세저포
	오목이	-	
	누비천의 누비요	두록 -	수화주

3. 명절 · 기념일 옷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어린이에게 새 옷을 장만하여 입히는 풍습이 있었다. 명절 옷이라 하여 특별한 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첫돌 옷과 종류 및 구성이 유사하다.

남자 어린이는 바지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전복, 복건 등의 옷을 입는다. 평상시에는 좋은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히지 못하는 집안에서도 설날만은 명주나 양단 옷을 장만하였고 추석에는 숙고사, 향라, 순인 과 같은 얇은 비단 옷을 장만하였다. 바지와 저고리는 주로 분홍색, 옥색, 보라색, 미색 등 연한 색으로 하였으며 여자의 치마저고리를 동일한 색으로 입지 않는 것과 같이 남자의 바지저고리도 동일 색으로 입지 않았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네 집안의 남자 저고리에는 색동소매를 단 색동저고리는 한 점도 없으며

23) 장서각편, 앞의 책, 「무술 사월 아기사 백일 의복 발기」

연한 분홍이나 옥색저고리가 많았다. 반면 마고자나 두루마기처럼 겉옷에는 색동소매를 단 것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반가의 남자 아이들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은 저고리만 입히지 않고 그 위에 마고자나 두루마기를 덧입기 때문에 저고리에는 색동으로 장식하지 않고 오히려 저고리 위에 덧입는 마고자나 두루마기에는 색동 소매를 달고 오방색으로 길과 깃, 싹을 꾸며주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는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힌다. 복건이나 굴레 같은 쓰개 종류와 두루마기나 마고자 같은 겉옷을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저고리에라도 색동소매를 달아 까치두루마기를 대신하여 입혔던 듯하다. 1925년에 발간된 최초의 재봉 서적인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²⁴⁾ 에도 색동저고리 짓는 법이 아동옷을 대표하여 설명되어질 정도로 색동저고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입혀졌던 어린이 옷이었다.

색동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사(邪)한 기운을 막는 기쁨의 색으로 각인되어 오랜 세월 동안 아기의 돌에는 물론 명절에 반드시 색동옷을 입히고 싶어 하였다. 내적으로는 음양오행 사상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개념이 들어있고 시각적으로는 아롱진 무지개와 연상되어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명절에 입는 조끼와 마고자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남색 숙고사나 모본단을 길감으로 하고 안감은 진분홍을 대어 보색 대비의 미를 귀엽게 표현하였고 목둘레와 도련에 금박을 찍어 화려하게 꾸며준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색은 정해지지 않은 듯 초록이나 옥색 적갈색과 같은 다양한 색들의 조끼도 많이 남아있고 까치두루마기를 장만하지 않는 집안에서는 색동마고자도 만들어 입혔다. 1932년 영왕의 2남 구(玖)왕자의 색동마고자 사진과 유물이 남아있는데 이 무렵 색동마고자가 유행한 듯 민가의 색동마고자도 많이 남아있다.

복식의 격식을 중요시 하는 집안에서는 어린 아이에게도 반드시 겉옷인 포를 입혔다. 안동김씨 집안의 옷 중에는 사구삼, 청색 도포, 여름용 녹색 홀두루마기, 진분홍 홀두루마기 연두 겹두루마기, 전복 등 다양한 종류의 포류가 많이 남아있다. 집안의 혼례나 대소사에 입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림 7, 8>에서와 같이 양반가정에서 어린이들도 신분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신분에 어울리는 복식을 격식 갖추어 입었다.



<그림 7>
도포를 입은 아이,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심장편
<그림 8>
양반집 자녀,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24) 김숙당(1925), 『朝鮮裁縫全書』, 민속원, pp.90-92.



〈그림 9〉
분홍두루마기를 입은 남자아이,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그림 10〉
설빔을 입은 아이들, 『한국전통 어린이 복식』

남자두루마기 중에는 진분홍색 두루마기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림 9〉에서와 같이 상당히 큰 남자 아이들도 나들이를 갈 때 이와 같은 색상의 두루마기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근세 풍속을 알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을 보면 명절용으로는 색동옷이나 사규삼, 오방장두루마기 등 첫돌 옷과 같이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많이 입었다. 〈그림 10〉는 '소화 12년 원일'이라 인쇄된 1937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남녀 어린이 6명이 설빔을 입고 있는 사진이다.²⁵⁾ 남자 어린이 3명 중 둘은 사규삼을 입고 있으며 한명은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있다. 머리에는 모두 금박을 한 복건을 쓰고 버선에 꽃신을 신고 있다. 여자 어린이는 색동저고리에 금박을 찍은 짧은 통치마를 입고 목이 긴 버선과 갓신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금박을 찍은 조바위를 썼다. 이처럼 여자아이들은 색동저고리를 많이 입었는데 색동소매 뿐만 아니고 쏘에도 색색의 천을 삼각형이나 직선으로 예쁘게 조합하여 바느질하였다. 치마의 길이가 짧은 통치를 입은 것은 당시 어른의 한복에 개량 디자인이 유행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반면에 집안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들이를 갈 때에는 명절에 비하여 평범한 한복을 많이 입었다. 잔치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그림 11〉에서와 같이 색동소매를 단 까치두루마기 보다는 나이 어린 아이들도 민두루마기를 입은 사진이 많이 남아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짙은색 두루마기에 학생모자를 썼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김중학씨 집안의 먹물들인 검정두루마기도 이러한 용도로 입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평상 옷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향하는 사회 전반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의생활의 양복화 경향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도시 상류층 일부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한복을 애용하였다. 일반가정에서 어린이들은 첫돌이나 명절에 한복을 차려입는 것은 물론이며 가족의 결혼식, 졸업식과 같은 의례에도 대부분 한복을 입었으며 그밖에 일상 활동복으로도 한복을 많이 입었다.

25) 박성실(2000), 「전통아기옷의 실증적 고찰」, 『한국전통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박물관.

4.1 남아복

남자 어린이들의 평상복차림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바지와 저고리 차림이 대부분이며 1930년대부터는 성인 남자의 의복에 조끼가 유행하면서 어린이 옷에도 <그림 13>에서와 같이 조끼를 입기 시작한다. 저고리는 대부분 무명이나 명주로 만드는데 계절에 따라서 봄 가을에는 겹저고리, 겨울에는 누비저고리나 솜저고리를 입으며 여름에는 홑저고리를 입는다.

조끼는 외출용 남색의 숙고사나 모본단, 양단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평상 활동용으로는 실용성 때문에 짙은 검정색 무명으로 만들어 입었다.

바지는 2~3세까지는 풍차바지를 많이 입히지만 4살 정도가 되면 풍차바지 대신에 성인의 바지와 같으나 배래에 창구멍을 내어 용변이 편리하도록 만든 '개구멍바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입혔다. 1925년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朝鮮裁縫全書)』²⁶⁾에도 개구멍바지는 3세부터 5세까지 입히는 것이라 하며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많이 입었던 바지였음을 알 수 있다. 경운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에도 개구멍바지는 상당히 여러 점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전통형 개구멍바지 이외에 어깨 끈을 단 개량형 개구멍바지도 몇점 나왔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어린이는 외출할 때에 <그림 14>에서와 같이 바지저고리 위에 민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흔한 모습은 아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모자부터 신까지 전통 차림을 한 모습 보다는 <그림 18>에서와 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두루마기에 학생모자를 썼다.



<그림 11>
잔치에 두루마기를 입은 아이들.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편

<그림 12>

아이들의 평상복.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그림 13>

조끼를 입은 아이들.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 생활과 풍속편

26) 김숙당(1925), 『朝鮮裁縫全書』, 민속원, pp.90-92.

4.2 여아복

여자 아이들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다. 여자 어린이 옷의 형태는 성인 여자의 옷과 변천을 같이 하는데 <그림 15> 이화학당의 1900년 소학교 입학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1900년대 초기까지도 짧은 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고 머리는 땋아 늘어 자주나 다홍뎡기를 들인다. 그러나 여자아이라도 나이가 어려서 용변을 가리기 전까지는 <그림 16>에서와 같이 허리길이 돌때 저고리에 풍차바지를 입었다. 1910년대부터는 이



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어린 아이들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치마가 짧아졌다<그림 17>. 특히 1920년대는 짙은색의 통치마를 한층 줄여 층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그림 18>는 1921년 아현 유치원생들의 모습으로 짙은 색 치마를 아래 단을 접어 팔막하게 줄여 입었다.

<그림 19>는 1930년대 이화유치원 유희시간으로 이때까지도 아이들은 치마저고리 혹은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는 길게 땋아 다홍 뎡기를 띠었다. 여자 어린이는 남자 어린이에 비해 두루마기 착용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겨울철이나 부유한 집에서는 두루마기를 입었다.

현존하는 여자 어린이 옷에 색동옷이 많이 남아있으나 이는 명절등 특별한 용도의 저고리이고 사진들에서 확인되는 여자 어린이 평상복은 무명이나 명주로 만든 민저고리를 많이 입었다. 여자 어린이의 쓰개로는 조바위, 남바위와 굴레가 있으나 이런 것은 명절옷이나 특별한 의례에 착용했을 뿐이며 평상시에는 다홍 뎡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30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전통쓰개나 뎡기머리도 사라졌으며 한복을 입고서도 대부분 짧은 단발머리로 바뀐다. <그림 20>은 1937년 신명유치원 졸업사진으로 짧은 통치마와 저고리에 단발머리를 하였다.

어린이들이 평상복으로 한복을 입는 것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그림 21>의 1942년 유치원 졸업사진에서와 같이 1940년대부터는 한복을 입은 모습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서양식 옷을 입었다.

- <그림 14>
가족의 외출『민족의 사진첩』민족의 전통편
<그림 15>
소학교에 입학 한 아이들, 『민족의 사진첩』 민족의 전통
<그림 16>
돌때 저고리에 풍차바지를 입은 아기 『민족의 사진첩』민족의 심장



〈그림 17〉
긴 저고리 짧은 치마,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그림 18〉
유치원 놀이시간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조선왕조 말기부터 근세로 이동하는 50여 년 간의 왕실 및 민간 어린이옷을 정리하였다. 어린이옷의 종류는 남자아이는 복건이나 호건, 굴레의 쓰개류, 두루마기, 사규삼, 패자, 전복 등의 포류, 마고자와 배자, 조끼, 바지저고리 등이 있으며, 여자 어린이는 굴레, 조바위, 땡기 등의 쓰개 및 수식류, 두루마기, 저고리, 치마 등이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안동김씨, 풍향조씨, 여흥민씨, 파평윤씨 집안의 어린이옷에서 확인되는 흥미로운 점은 모두 남자 어린이옷만 남아있을 뿐 여자 어린이옷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른 박물관의 소장품에도 여자 어린이의 옷은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20세기까지도 강하게 남아있는 남아 선호사상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아마도 아들 아기 옷만은 잘 만들어 소중하게 보관하였고 딸 아기 옷은 간단히 만들어 평상시에도 입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가의 남자 어린이옷들을 현존하는 왕손복의 유물이나 〈별기〉등의 기록들과 비교해 볼 때 관복이 아닌 평상복에서는 기본적인 구성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 특히 안동 김씨 집안에서는 도포나 사규삼과 같은 예복도 상당히 갖추어 입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민간에서는 대부분 삼칠일이나 백일까지는 백색의 간단한 옷을 입혔으나 왕실에서는 삼칠일이나 백일에도 민간의 돌옷과 같이 격식을 갖추어 장만한 점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왕실에서는 색동옷에 대한 기록이 1932년 구왕자의 돌옷에 처음 확인되며 그 이전 삼칠일, 백일, 돌 옷에는 색동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18세기에 그린 풍속화에도 색동옷을 입은 돌맞이 아이모습을 볼 수 있고 전 세되는 유물도 매우 많아 왕실보다는 민간에서 색동옷이 더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동은 우리 민족에게 사함을 쫓고 기쁨을 전하는 대표적인 색으로 인식되어 돌이나 명절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남녀 어린이 대부분이 색동옷을 입지 않고 민저고리와 민두루마기를 입은 사진자료들이 많았다.

어린이의 특별한 날 옷 중에는 돌날 입는 옷이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었으며 명절이나 다른 행사용 옷은 유사하거나 더 간소화 된 것이 많았다. 어린이 옷에 장식하는 색상이나 문양, 디자인 등은 모두 자녀가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램을 담은 길상무늬가 었다. 강한 원색의 조합이나 길상의 의미를 담은 동물이나 식물무늬를 활용할 때 자칫 유치해지기 쉬우나 우리의 어린이옷에서는 어린이의 천진함과 어울려 기쁨을 전해줄 뿐 아니라 엄마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이 깃들어 오히려 예술품에서나 볼 수 있는 상



〈그림 19〉
짧은 치마를 입은 아이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그림 20〉
단발머리 아이들.
『서양인이 본 고려아』

칭의 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이가 세살이 되면 '하레기'라고 하는 전통복식을 입혀 신사에 참배하며, 남자아이는 다섯 살 여자아이는 일곱 살이 되면 다시 '하레기'를 입혀 신사에 참배한다. 이런 의식은 각각의 나이를 따서 '시치고상' (753)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전통복식 입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소중하고 어여쁜' 전통 어린이옷들이 많은데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돌맞이 이외에 성장과정에 따른 통과의례를 재미있게 연출하여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전통 어린이옷을 어려서부터 입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계승은 21세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신속하게 장만할 수 있는 '기성 아동복'만을 사서 입히는 현대사회에 과거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지어 입혔던 어린이 복식을 재조명하는 것은 복식사적인 가치는 물론 현대인에게 아동복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기게 할 수 있다.

이 전시를 통하여 정신없이 급하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소중하고 어여쁜 어린이 옷'을 한 땀 한 땀 천-천-히 정성껏 만들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 벌 씬 선물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함은 물론 전통문화에 친숙해지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그림 21〉
1942년 이화유치원어린이들 『사진으로 보는 이화유치원』

작품 목록

1 저고리 赤古里

1930년대 Jacket for Boys Cotton 겹 · 옥양목 길이 38cm
 폭 33cm 화장 42cm

2 조끼 襟子

1920년대 Vest for Boys Silk 홉 · 진주사 길이 39cm
 폭 39cm 고대 12cm

3 동아리저고리 赤古里

1920년대 Jacket for Boys Silk · Ramie 겹 · 순인 모시
 길이 31cm 폭 33.5cm 화장 37cm

4 조끼 · 저고리 襟子 · 赤古里

1920년대 Vest for Boys; Jacket for Boys Silk · Cotton 홉 ·
 갑사 홉 · 소화문주(小花紋紬) 조끼:길이 34cm 폭 34.5cm
 고대 10cm 저고리:길이 32cm 폭 34.5cm 화장 44cm

5 전복 · 포대 戰服 · 布帶

192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Silk 홉 · 갑사 모본단
 길이 63cm 폭 31.5cm 고대 8.5cm

6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홉 · 광사
 길이 70cm 폭 36.5cm 화장 43.5cm

7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홉 · 광사
 길이 70cm 폭 35cm 화장 41cm 수구 13cm 전동 16cm

8 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소화문주(小花紋
 紬) · 삼판주 길이 81cm 폭 41cm 화장 51cm

9 색동두루마기 周衣

192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겹 · 갑사
 순인, 숙고사 영고사 명주 Silk 길이 59cm 폭 32cm 화장 39cm

10 도포 道袍

1920년대 Coat for Boys Silk 홉 · 갑사 길이 75.5cm
 폭 38.5cm 화장 52cm

11 사규삼 四袷衫

1920년대 Ceremonial Coat for Boys Silk 화문순인 · 순인
 사규삼:길이 70cm 폭 34cm 화장 48cm 뒤통 19cm

12 전복 戰服

195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길이 62cm
 전복 폭 길이 164.5cm

13 개구멍바지

19세기 말·20세기 초 Trousers for Boys 길이 65cm

14 저고리 · 풍차바지

1937년 Jacket and Trousers for Babies 바지길이 71cm
 저고리길이 28cm 화장 38cm

15 돌띠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Jacket for Children 길이 35cm 화장 35.5cm

16 돌띠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vercoat for Children 길이 57cm 화장 37.5cm

17 돌띠두루마기 周衣

20세기 초 Overcoat for Children 길이 63cm 화장 38.5cm

18 색동 두루마기 周衣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19 조끼 襟子

1900년 Vest for Boys Silk 겹 · 능직 공단 길이 33.5cm
 폭 40.5cm 고대 14cm

20 조끼 襟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 · 뉴통 인조견 길이 34cm
 폭 37.5cm 고대 13.5cm

21 색동마고자

1960년대 Jacket for Boys Silk 홉 · 숙고사 관사 명주
 길이 32cm 폭 33cm 화장 37cm

22 색동두루마기 周衣

193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홉 ·
 숙고사 명주 길이 64cm 화장 36cm 폭 33.5cm

23 두루마기 周衣

193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홉 · 순인 진주사
 온조사 길이 77cm 폭 34.5cm 화장 44.5cm

24 돌띠저고리 · 조끼 · 마고자

1950년대 Jacket, Vest and Over-Jacket for Boys
 길이 28cm(저고리) 30cm(조끼) 29.5cm(마고자)
 화장 34cm(저고리) 36cm(마고자)

25 돌띠 저고리 赤古里

193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화문단 인조견
 길이 32.5cm 폭 31cm 화장 34.5cm

26 조끼 襟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 · 숙고사 명주
 길이 30cm 폭 33.5cm 길이 30.5cm 폭 32cm

27 조끼 襟子

193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 · 숙고사 인조견
 길이 30.5cm 폭 32cm

28 조끼 襟子

1950년대 Vest for Boys Silk 홉 · 숙고사
 길이 36.5cm 폭 36.5cm

29 마고자

193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문단 화문단 은반진
 길이 30.5cm 폭 32.5cm 화장 34.5cm

30 색동두루마기 周衣

1930년대 Multi-Colored Overcoat for Children Silk 겹 · 모본
 단(模本緞) · 명주 · 홉 길이 60.5cm 화장 36.5cm 폭 34.5cm

31 전복 戰服

1940년대 Sleeveless Coat for Boys Silk 홉 · 갑사
 길이 53cm 폭 31cm

32 숨저고리와 조끼 赤古里

1940년대 Jacket and Vest for Boys Silk 겹 · 명주 모본단
 숨저고리 길이 29cm 폭 33cm 화장 35.5cm

33 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숙고사 명주
길이 54.5cm 폭 33.5cm 화장 37cm

34 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Jacket for Babies Silk 솜 · 명주 길이 26cm
폭 33cm 화장 34cm

35 바지

1940년대 Open Crotched Pants for Babies Silk 솜 · 명주
길이 45.5cm 바지통 20.5cm 부리 13cm 밑위 14cm
허리둘레 66cm 트임 17.5cm

36 누비 저고리 赤古里

1940년대 Quilted Jacket for Children 누비 · 삼관주 명주 겹
길이 27cm 폭 29cm 화장 32cm 누비간격 0.8cm

37 개량 솜바지

1940년대 Trousers for Boys Silk 솜 · 숙고사 명주
길이 56cm 부리 16cm 허리너비 3.5cm 허리둘레 70cm

38 조끼와 마고자

1940년대 Vest and Jacket for Boys Silk · Cotton 겹 · 뉴통
면 조끼:길이 33.5cm 폭 35cm 마고자:길이 32cm 폭 35cm
화장 39.5cm

39 상의 上衣

1940년대 Quilted Jacket for Babies Silk 누비 · 크레이프
명주 길이 27cm 폭 26cm 화장 33cm

40 개량 바지

1940년대 Open Crotched Pants for Babies Silk 솜 · 관사 인
조건 길이 40cm 바지부리 12.5cm 허리너비 4cm
허리둘레 60cm 트임 18cm

41 쓰개와 버선

1940년대 Hood and Socks for Children Silk · Cotton 솜 ·
뉴통 무명 광복 쓰개:길이 43cm 밑둘레 70cm 머리통 19cm
버선:길이 26cm 버선목 12cm 회목 10cm 발길이 15cm

42 배넛저고리

19세기 말~20세기 초 Swaddle Jacket, Cotton 길이 22cm
화장 25cm

43 두렁이

19세기 말~20세기 초 Skirt for Babies, Linnen 길이 49cm

44 배두렁이

1970년대 Belly Cover for Babies 솜 · 삼베 명주 Hemp · Silk
길이 23.1cm 폭 32.6cm

45 붓뒤창옷

1950년 New-born Baby's Clothes 솜 · 삼베 Hemp
길이 23.5cm 폭 18.2cm 화장 54cm

46 배넛저고리와 가운

1940년대 Swaddle Jacket Gown and for Babies Ramie ·
Cotton 솜 · 보시 소창 길이 60.5cm 폭 33cm 길이 23.5cm
폭 24.5cm

47 누비두렁치마

1880년대 Quilted Skirt for Girls
누비 · 무명 길이 40cm 폭 148cm

48 저고리와 두렁이 赤古里

Jacket and skirt for Children 겹 · 명주 솜
저고리:길이 24.5cm 폭 30.7cm 화장 36cm
두렁이:길이 41.5cm 둘레 69cm 주름간격 3.5cm

49 두렁이

Skirt for Babies, Cotton
19세기 말~20세기 초 길이 39cm

50 모자 · 케이프 · 턱받이

1940년대 Silk Cap, Cape and Bib for Baby 실크 Silk
모자:높이 11cm 뿔 폭 5cm 케이프:길이 35cm, 둘레 110cm
턱받이:가로 25.5cm, 세로 22cm

51 색동 두루마기 周衣

20세기 Multi-colored Coat for the First Birthday 겹 · 모본단
뉴통 Silk 길이 51cm 폭 31cm 화장 36.5cm

52 색동 저고리 赤古里

20세기 Children's Jacket with Back Ornaments Silk 겹 · 문단
명주 길이 21cm 폭 30.5cm 화장 32cm

53 저고리 赤古里

Jacket for Girls 솜 · 자미사 Silk 길이 23.5cm 폭 33.5cm
화장 38cm

54 돌띠저고리 赤古里

193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갑사 인조견
길이 26cm 화장 31.5cm 폭 29.5cm

55 풍차바지

1930년대 Pants for the Boys Silk 겹 · 갑사 면아사
길이 63.5cm 허리둘레 58cm 허리길이 18cm

56 조끼 褡子

20세기 초 Vest for Boys Silk 겹 · 문룡 명주
길이 28.2cm 폭 26.5cm

57 색동마고자

1940년대 Jacket for Boys Silk 겹 · 매죽단(梅竹緞) 색동단
온반견 길이 30cm 폭 35cm 화장 37cm 끈통 14cm
수구 10.5cm 고대 11cm

58 색동 마고자

20세기 초 Jacket for Boys Silk 겹 · 화문단 삼관주
길이 31cm 폭 33.5cm 화장 39.5cm

59 배자 褡子

1880년대 Vest for Boys 길이 30.5~ 31.5cm 폭 26~29cm

60 조끼 褡子

1940년대 Vest for Boys Silk 겹 · 명주
길이 30.5cm 폭 30cm

61 두루마기 周衣

1940년대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명주
길이 52.5cm 폭 31cm 화장 37cm

62 두루마기 周衣

1949년 Ordinary Coat for Boys Silk 솜 · 공단 인조견
길이 56cm 폭 34cm 화장 36cm

63 두루마기 周衣

20세기 Ordinary Coat for Boys Silk 겹 · 명주 무명
길이 77.5cm 폭 39cm 화장 51cm

64 금원앙노리개 鴛鴦單作佩飾

19세기 말 Pendant with Twin Ornament

65 삼작노리개 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Three Ornaments 길이 31cm

66 후호 삼작 노리개 投壺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Silver Three small jar-shaped
Ornaments 건 총길이 23cm 술길이 10cm, 후호광식 2.8cm

67 산호 · 표주박노리개 三作佩飾

20세기 Pendant with Coral Ornament Pendant with Jade
Ornament 길이 25cm 술길이 16cm

68 노리개 佩飾

20세기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건 · 은 산호
철보 길이 23cm 길이 13.5cm 길이 13.5cm

69 노리개 佩飾

20세기 초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건 · 은 ·
산호 · 철보 길이 13.5cm 길이 15.5cm 길이 15cm

70 노리개 佩飾

20세기 초 Pendant with Silver Ornaments Silk 건 · 은 산호
철보 길이 17cm 길이 3.5cm

71 두루주머니 囊

20세기 초 Children's Pouch Silk 겹 · 문단 명주
지름 5cm 매듭 길이 한쪽 10 cm

72 새앙머리댕기 唐只

19세기 말 Hair Ribbon 길이 134.5cm 폭 5cm

73 댕기 唐只

20세기 Hair Pieces Silk 황라 뉴통 숙고사 광사

74 배씨댕기 唐只

20세기 Hair ribbon with Silver Ornaments 건 Wool
총길이 62cm 삭모 2.5cm

75 두루주머니와 귀주머니

20세기 Children's Pouch

76 조바위

1960년 Girl's Winter Bonnet Silk 겹 · 문단 인조견
길이 18cm 개인소장

77 조바위 매듭 술

20세기 초 Ornaments for bonnet Silk 자색:총길이 41cm
술길이 5cm 오색:총길이 45cm 술길이 8.5cm
홍색:총길이 42.5cm 술길이 5.5cm

78 굴레

1930년대 Bonnet for Children 겹 · 모본단 길이 21cm
둘레 37cm 끈길이 44cm

79 풍뎡이 風簾

20세기 Fur Lined Winter Hood for Children Silk

겹·모본단 문능 길이 33cm 둘레 43cm

80 굴레

20세기 Bonnet for Children Silk 겹·모본단 둘레 35.5cm
끈(5×39)×2cm

81 굴레

1920년대말 Bonnet for Children Wool 견

82 굴레

20세기 초 Bonnet for Children

83 복건·幅巾

1930년대 Bonnet for Boys Silk 홀·순인
길이 58cm 너비 22.5cm 끈길이 65.8cm 끈너비 5.3cm

84 복건·호건 幅巾·虎巾

1937년 Hood for Boys 길이 63cm (복건) 59cm(호건)

85 아기모자 帽子

20세기 Baby's Bonnet Cotton 면아사 크레이프직 Crepe
높이 14.3cm 17.0cm 16.5cm

86 토시 套袖

20세기 Children's Muff Silk 겹·문단 옥양목 길이 15cm
손목둘레 17cm

87 토시 套袖

19세기 Children's Muff 겹·관사 무명 Silk 길이 10cm
손목둘레 12cm

88 토시 套袖

1920년대 Wristlets, Silk 길이 15.5cm(좌) 23.0cm(우)

89 타래머선 襪

20세기 초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90 타래머선 襪

1930년대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Cotton 겹·옥양
목 발길이 13.5cm 높이 17.5cm 끈길이 27cm 끈폭 2.5cm

91 누비머선 襪

20세기 Socks for Children 견 누비 옥양목 길이 29.5cm
목 10.5cm 회폭 8.8cm

92 타래머선 襪

19세기 말 Embroidered Socks for Children Cotton 누비·옥
양목·명주 대:길이 19.5cm 머선목 11cm 회폭 9.5cm
소:길이 14.5cm 머선목 8.2cm 회폭 6.5cm

93 태사혜 太史鞋

1960년대 Shoes for Children 가죽·비단 길이 21cm 폭 6cm
길이 13cm 폭 4.5cm

94 태사혜와 운혜 太史鞋·雲鞋

19세기 말 Shoes for Children Silk 가죽·견
태사혜:길이 15cm 폭 4.5cm 운혜:길이 14cm 폭 5cm

95 운혜 雲鞋

1970년대 Shoes for Girls 가죽·견
길이 14cm 길이 14cm

96 어린이나무신 木屐

20세기 Wooden Clogs 나무 Wood 길이 16.5cm
너비 6.3 cm

97 배두렁이와 바지 肚兜開 襠袴

1940년 이전 Belly Cover and Trousers for Babies Silk 견
배두렁이:길이 34.5cm 폭 42.5cm 바지:길이 47cm
허리둘레 64cm

98 신발 繡花鞋

1953년 Shoes for Children 견·가죽 길이 15cm
너비 6cm

99 중국 어린이 모자 帽子

20세기 Bonnet for Children Silk 공단 높이 16cm 둘레 51cm
앞길이 8cm 뒷길이 24cm

100 상의 旗裝

1800년대 Chinese Jacket for Girls 공단 길이 23.5cm
폭 22cm 화장 57cm

101 대금오·마갑·육합모

對襟襖·馬甲·六合帽

1950년대 이후 Blouse, Vest and Bonnet for Children
모자:높이 16cm 둘레 51cm

102 장오 長襖

19세기 말 Ordinary Coat for Children Silk 겹·공단 무명
길이 41.5cm 폭 30cm 화장 31cm

103 몽골 어린이 옷

‘а а а а (deel, 델)’

104 운견 雲肩

20세기 초 Collar for Children 겹·견 무명 저름 27.5cm
목둘레 9cm

105 운견 雲肩

20세기 초 Lotus-shaped Collar for Children
겹·견 무명 저름 27.5cm 목둘레 9cm

106 배자 褙子

1940~50년대 Vest for Children 총길이 62cm
폭 35cm

107 조끼 褙子

20세기 Vest for Children 총길이 62cm 폭 35cm

108 포대기 背扇

Baby's Bedding Cotton 길이 71.5cm 폭 60cm

109 포대기 背扇

20세기 Baby's Bedding Cottons 길이 72cm 폭 25cm

110 포대기 背扇

20세기 Baby's Bedding 겹·무명 CottonHorschair
길이 48cm

111 중국 여아 모자 帽子

20세기 초 Chinese Bonnet for Children 높이 16.5cm
둘레 51cm

112 중국 남아 모자 帽子

20세기 초 Chinese Headdress for Children 솜·드릴

(Drill)·무명 Drill 길이 40cm 폭 23cm 뒷장식 길이 41cm

113 소모자 帽子

1949년 Bonnet for Children Silk 견 둘레 51cm 높이 13cm

114 화모 帽子

1949년 이전 Bonnet with Embroidery Flower 무명 Cotton
길이 41cm 높이 8cm 둘레 55cm

115 화모 帽子

1949년 Bonnet with Embroidery flower and Birds Cotton
무명 길이 37cm 둘레 48cm 높이 9cm

116 기모노 着物

20세기 Kimono 합섬 Kimono Silk 길이 83cm 폭 37.5cm
화장 44cm

117 기모노 着物

118 오비

1972년 Decorative Belt for Children 대 91×17cm
리본 40×30cm

119 다비와 게다 足袋 木

Socks and Sandal 면 플라스틱 다비 18cm 게다 길이 19.5cm
폭 7cm

120 유카다 浴衣

1970년대 Robe for Children Cotton 면 길이 83cm
폭 37.5cm 화장 44cm

121 합비 法浴

1976년 Summer Festival Costume for Boys Cotton 홀·면
길이 45cm 폭 35cm 화장 33cm

